

제11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책 주부들의 아름다운 노래 사랑 이야기

책 속에서 찾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영남일보

따뜻한 책 한권! 코로나19 극복의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예상 밖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책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번 「제11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부를 대상으로 수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들의 독서 운동 참여를 기반으로 책사랑 운동 전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

니다.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올해는 361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응모율이 증가하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알게 되어 무척 행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유독 가족 사랑에 대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의 부부생활과 관련된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두 남녀가 책을 통해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작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책과 관련된 아버지와와의 일들을 회상하며 쓴 대상작 도애희 님의 ‘아버지의 책상자’를 통해 가족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 재미를 더 했습니다.

이처럼 달서구는 매년 영남일보사와 공동으로 주부수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독서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과 함께 지역사회 독서문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따뜻한 책 한 권은 코로나 19 극복의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종이매체에서 온라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장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한 독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식정보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지금, 따뜻한 책 한권으로 용기를 내고 지혜를 얻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희망의 씨앗을 키웁시다.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나아가 온 세상에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하여 주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영남일보사와 심사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을엔 따뜻한 책 한권과 함께 코스모스 향기 가득한 가을되시길 빌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 태 훈

|인사말씀|

코로나가 바꾼 일상, 그리고 독서(讀書)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급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불씨가 쉽사리 꺼지지 않아 도서관은 휴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움츠러들어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공모전에 보내주신 전국 주부들의 열정은 코로나 팬데믹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일까요? 이번 공모전에는 ‘가족’을 소재로 한 이야기, 그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손때 묻은 아버지의 책 상자,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서재, 그리고 가까이하기 어려웠던 아버지의 존재가 아련한 향수가 되어 주부들의 마음을 흔들었나 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된 요즘 우리는 모두 네모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TV,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네모난 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인들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요즘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합니다. 그 네모난 세상 속에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휴대전화가 아닌 책이면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도 사회적 동물이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네모난 세상밖에 어찌면 더 의미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독서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독서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토리텔러인 주부, 어머니가 물려주는 소중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고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지금 네모난 세상에서 나와 독서를 통해 코로나블루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남일보는 연중캠페인 ‘책을 읽읍시다’라는 주제로 생활 속 책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사랑 주부수필 공모전’은 주부들에게 독서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남일보와 달서구청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 열정으로 화답해주신 전국 주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는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에 전국 주부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영남일보 사장 노 병 수

대상

도애희	아버지의 책상자	12
-----	----------------	----

금상

이주희	나의 문학소녀를 위하여	18
이현숙	책으로 이어진 인연	23

은상

김미자	소리	29
류슬립	엄마의 새로운 진로탐색-'엄마의 20년'을 읽고	34
이소영	당신의 북킷리스트	44

동상

김민정	이사	49
김형미	기억	56
이창희	진달래꽃	62
정학경	책은 언제나 내 편이었어	67
허경주	플랜 비(plan B)는 B(book)에 있다.	73

가작

강인숙	세 번째 소설	79
강효정	책은 나에게	84
김경진	마음을 잇는 시간	87
김정규	나의 슬기로운 독서사(史)	92
김지현	나의 어머니	98
김지형	아버지의 서재	103
박선영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책은 고기 맛	108
박수득	책이 있는 풍경	115
박윤정	아버지의 서재	120
박혜경	가면	128
이남숙	아버지의 유산	133
이도화	할머니와 헤르만 헤세	138
이상희	바람의 향기	144
이인순	내 인생의 등불	149
정예영	나의 하우(how)는 엄마의 노하우(knowhow)	155
조미구	아들이 달아준 날개	160
홍종림	모모가 선물한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	166
심사평	모두가 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아름답고 잔잔한 투쟁기 ...	173
관련기사		176



주부들의 아름다운 노래

책사랑 이야기

제11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아버지의 책상자

도애희 대구 동구 동호동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마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산동네 판자촌에서 드물게 대학 나온 사람인데다 인물도 흰했다. 동네 찻집 마담과 선술집 젊은 과부는 아버지만 보면 분내 묻은 눈웃음을 흘렸다. 동네 한량들이 걸쭉한 술판을 벌이는 날이면 아버지는 ‘왕년에 내가 말이야’를 외치며 허세를 부렸다. 그날 술값은 으레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 장부에 기재되고 외상값을 갚는 일은 오롯이 엄마 몫이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경제 의욕을 상실한 아버지 대신 엄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엄마는 바람 빠진 공처럼 쪼그라드는 살림살이를 붙잡고 허우적대면서도 욕을 하거나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없었다. 한 달에 두어 번 아버지 외상값 받으러 온 여인네들과도 말을 길게 섞지 않았다. 커피값과 술값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으리라 의심하면서도 땀에 전 전대를 풀어 그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순순히 내

주었다. 그런 엄마가 실성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악다구니를 했다.

작은 트럭에 실려 온 책 상자가 좁은 마당에 가득 부러졌다. 아버지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책 구매 계약서에 집주소를 적어 주었다. 그 사람이 책 수십 상자를 우리 집에 부려놓고 수수료를 챙겨 잠적한 것이다. 아이들 볼 책 몇 권만 가져오라 했다는 아버지의 웅색한 변명을 엄마는 믿지 않았다. 분명 앞뒤 없이 소용될 만큼 알아서 가져오라 기마이를 썼으리라 짐작했다.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꺼이꺼이 울었다. 그동안 쌓인 울분이 활화산 마그마처럼 한꺼번에 터졌다. 책 도로 갖다 주라고 아버지를 뉘달했지만 그 사람의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다. 출판사와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 하소연해도 뵈죽한 수가 없었다.

애면글면하는 엄마에 대한 연민보다 책 상자를 향한 호기심이 더 컸다. 나와 동생들은 처음 보는 열매를 발견한 다람쥐처럼 책 상자 주위를 맴돌았다.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한국의 역사’, ‘한국단편소설집’, ‘학습백과사전’ 등 상자 겉면에 적힌 책 제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우리들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가 책 상자들을 처마 밑으로 옮겼다. 책값은 최소 금액으로 최장 기간 할부로 갚기로 타협을 했다지만 문제는 책을 둘 자리였다. 단칸방은 여섯 식구 눕기도 비좁았다. 연탄 창고 옆에 납작한 나무 상자를 깔고 책 상자를 차곡차곡 쌓였다. 커다란 천막 비닐을 덮어 책이 젖지 않도록 방수를 했다.

이사할 때마다 사람들 발길에 차이는 천덕꾸러기였다. 품이 너른 집으로 이사를 해도 여전히 처마 밑이나 창고 옆에서 노숙하는 신세

었다. 책값 갚느라 오지게 고생하는 엄마의 분풀이 상대였다. 아버지 대신 골목길에 내동댕이쳐지는 봉변도 여러 번 당했다. 그럼에도 그 책들은 예순 고개 겨우 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보다 몇 년 더 우리 곁에 눌러살았다.

집에 있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쁜 엄마는 새벽부터 집을 비웠다. 울도 담도 허술한 집에 남겨진 우리 사 남매는 유년의 대부분을 책과 뒹굴며 보냈다. 책들이 어른들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어린 동생들 무릎에 앉혀 한글을 가르쳤다. 산동네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험한 세상 밭 헛딴지 않는 지혜도 가르쳤다. 잡초처럼 웃자라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절제와 인내를 가르쳤다. 백일장에서 장원한 날, 시험 만점 맞은 날, 우등상 받은 날, 시험 합격한 날의 기쁨도 함께 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까지 책들이 함께 누렸다.

산동네가 재개발되어 환골탈퇴를 거듭했다. 하지만 우리 집 책상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다. 오랜 노숙 생활로 노화가 빨랐다. 책 갈피갈피 저승꽃 같은 얼룩이 생겼다. 사 남매의 손때 묻은 모서리는 너털너털했다. 남루한 행색이 새 아파트 품격에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까시래기 가득한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던 아이들이 훌쩍 자라버렸기 때문이다.

엄마의 집을 털기 위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했다.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대학 공부를 마친 동생들은 전문 직업인이

되고 나는 평범한 전업주부가 되었다. 든든한 남편과 반듯한 세 아이들로 꾸민 꽃밭은 아담하고 예뻐다. 완벽한 꽃밭을 만들려고 온갖 정성을 쏟았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꽃이 피지 않은 빈 공간 때문에 완벽한 꽃밭을 만들지 못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진취적인 삶을 사는 동생들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이 만든 공간이었다. 다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산동네 판잣집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이 만든 공간이었다.

불혹의 나이에 한참 늦은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 공부는 어렵지 않았다. 산동네에서 읽은 책들이 좋은 자양분이 되어 수월하게 졸업을 했다. 지금은 수업을 들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정받는 독서논술교사가 되었다. 오후 한 시만 되면 동화책 속에서 툭 튀어나온 듯 푹푹푹푹 아이들의 ‘선생님’을 부르며 품에 안긴다. 책으로 둘러싸인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쓰고 책을 읽는 행복으로 하루해가 빨리 저문다.

수업시간 아이들에게 산동네 책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버지의 기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던 책들이 내 삶을 바꾸었다고. 창고 옆에 쥘어두고 읽은 그 책들 덕분에 꿈을 이루었다고. 인생의 등불, 일생의 보약, 삶의 이정표 등 화려한 수식어와 비유법으로 책 예찬론을 늘어놓는다.

한 아이가 ‘기마이’의 뜻을 묻는다. ‘기마이’의 어원은 일본말 ‘기마에(きまえ)’인데 ‘돈이나 물건을 선선히 잘 내어주는 기질’이란 뜻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라고 알려준다.

“결국 선생님은 아버지의 책 상자 덕분에 꿈을 이룬 거네요. 아버지가 엄청 감사하겠네요? 난 엄마가 책 사줄 때마다 짜증만 나거든요.”

‘아버지 기마이 때문에 산 책 상자’로 시작한 구구절절한 책 예찬론을 ‘아버지의 책 상자 덕분에 꿈을 이루었다’란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버리는 아이. 게다가 아버지께 감사하냐는 엉뚱한 질문까지 던진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들추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던 원망심이 뿌연 부유물처럼 떠다닌다. 감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 때문에!”를 외치며 악을 쓰는 사춘기 소녀가 서 있을 뿐이다.

책은 인생의 등불이라 찬양하면서 책과 인연의 고리를 맺어준 아버지는 애써 부정하며 살았다. 산동네, 아버지, 책 상자, 인생의 등불로 이어지는 이야기 고리에서 ‘아버지’ 고리를 빼내려고 하니 이야기 전개가 균형을 잃고 절뚝거린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콧물 눈물 묻은 수식어를 달았다. 주렁주렁 수식어를 단 논리는 축축한 감정에 호소할 뿐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산동네에서 아버지가 사온 책 상자 덕분에 꿈을 이루었다’로 마무리한 아이의 요약이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다. ‘아버지 때문’보다 ‘아버지 덕분에’가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의 책 예찬론은 지금처럼 눅눅하지 않고 담백했을 것이다.

“선생님 아버지 혹시 하늘나라에서도 기마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한 아이의 객쩍은 소리를 하자 아이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깔깔 웃어댄다. 그 소란을 틈타 슬그머니 돌아서서 눈물을 훔쳐낸다. ‘아, 아버지’

나의 문학소녀를 위하여

이주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시부모님이 오셨다. 충남 보령에서 대구까지 3시간을 달려오셨다. 2박 3일 체류를 위한 짐가방과 함께, ‘며느리’에게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직장인에 빗대자면 임원과의 2박 3일 워크숍이 비슷한 느낌일까. 아니, 이런 성찰조차 사치다. 어서 밥을 해야지. 처음 끓여 본 매운탕은 내 입에도 맛이 없었다.

없는 솜씨에 갇은 재주를 부려 다섯 끼를 내리 차려내고 나니 어느덧 시부모님이 보령으로 돌아가실 시간이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 두리번두리번 찾아보니 아빨싸, 내 책장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 나는 음식은 가리지만 독서에 있어서는 잡식이다. 말하자면 내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책이 섞여 있는데, 이문열의 삼국지나 펄 벅의 대지, 피천득의 수필집 같은 번듯

한 책도 있는 반면 한참 인터넷 소설에 빠져있을 때 사놓은 로맨스 소설과 무협지도 있었다. 민망한 것은 둘째 치고 작은 방 한쪽 벽을 채울 만큼 책을 쌓아두고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애, 집도 좁은데 무슨 책을 이렇게 쌓아뒀니?’

‘애, 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사 나르니?’

머리 속에서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매끄러운 답변은 떠오르지 않았다.

“애, 나 이 책 빌려 가도 되니?”

“네네, 어머님!……네?”

“이 책 읽던 중이었어?”

“아니요, 어머님. 다 읽었어요, 가져가셔도 돼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남기고 어머니는 보령으로 돌아가셨다. ‘덕혜옹주’와 함께.

그 날 퇴근한 남편과 저녁 상에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님이 책장을 보시길래 난 또 허튼 데 돈 쓴다고 뭐라 하실 줄 알았거든. 어머님은 주부가 반찬거리 사는 것 외에 돈 쓰는 거 질색하시잖아. 그런데 ‘덕혜옹주’ 빌려 가도 되냐고 하시더라. 나 너무 놀랐어.”

“왜? 우리 엄마도 책 좋아하셔.”

“어머님이?”

“응. 옛날엔 엄마도 당신만큼 책 많이 갖고 계셨어. 이사 다니면서
헌 책방에 팔고, 버리고 해서 지금은 몇 권 없지만. 항암 치료 받으
실 때도 책은 꾸준히 읽으셨어.”

“항암 치료? 어머니 편찮으셔서?”

“아니, 옛날에. 나 고등학생 때 유방암 진단 받고 3년 치료 받으셨
어. 지금은 완쾌 되셨고. 몰랐어?”

몰랐다. 그 댁 딸이 아닌데 말해주지 않은 사연을 어떻게 알까. 돌
이켜보면 어머니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인스턴트, 배
달 음식 즐기지 말고 되도록 집에서 차려 먹으라고 철마다 논밭에서
온갖 채소를 따다 박스 채 택배로 보내셨다. 먹으면 신 트림이 올라
오는 진한 양파즙을 보내 주시며 잘 챙겨먹고 있나 확인하는 것도 잊
지 않으셨다. 젊을 때 몸 챙기라는 친정 엄마의 지청구에는 설핏 옷
고 말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는 갑갑해 하고 때로는 건성으로 넘겨
버렸다. 타인에게는 싹싹하고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나인데 왜 어머
님께서는 이토록 편협한 마음이 될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나는 모처럼 누군가를 궁금해 하며 그 측근인 아들을 통해 어머니
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알아주는 수
재였고 공무원 생활도 꽤 오래 하셨다고 한다. 그러다 첫 아이를 낳
고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이사를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셨다. 연년생 형제를 낳고 주부로 지내시다가 가게 사
정이 안 좋아지자 보험 설계, 화장품 방문 판매 등 주부가 할 수 있

는 일을 찾아 쉴 틈 없이 일하셨고, 그러던 어느 해 가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모든 일을 놓게 되셨다고 한다.

‘고부’라는 어려운 관계를 떠나 여자로서 바라본 어머니와 나의 삶
은 마치 평행 세계의 두 사람처럼 닮아 있었다. 딸아이를 임신하고
만삭까지 직장에 다니던 나는, 미련 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퇴사
하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탕비실에서 많이 울었다. 바늘구멍 같
은 취업문을 뚫고 겨우 취직했는데 여느 선배들처럼 출산 때문에 회
사를 그만 두기는 싫었다. 결국 희망 퇴직과 맞물려 출산 후에 회사
로 복귀하지 못했고, 떠밀리듯 경력 단절로 휩쓸리게 된 나는 마음
한 편에 어머니에 대한 애꿎은 원망을 담아두고 있었다. 한 개인으
로서의 내 노력과 능력을 무시하고 엄마와 아내로만 기능하길 요구
하는 어머니께 반발심이 들었다. ‘82년생 김지영’처럼 빙의라도 한
듯 대거리를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는 가
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선 그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55년생 김지
영’으로 살아오셨고, 그 삶의 경험 상 가장 옳고 편한 방법을 내게
알려주고 싶으셨을 뿐이다. 내 삶이 틀리지 않듯 어머니의 삶도 틀
리지 않았다. 나는 불 꺼진 주방에 동그마니 앉아 눈물을 흘리는 어
머니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어쩐지 그녀를 안아
주고 싶어졌다.

“애, 너희 반찬은 해먹고 사니? 오이소박이 담귀주라?”

“어머니 힘드신데 제가 해서 먹을게요. 없으면 사먹고 사먹을 것

도 없으면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죠.”

“파는 음식은 조미료 많아서 안돼. 열무도 제철이니까……”

어머님과 통화는 오늘도 8할이 반찬 얘기다. 아직도 서운할 때가 있고 서먹할 때가 있다. 그래도 노력중이다. 귀 담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반찬통이 죄다 아들 집에 가 있어서 천냥마트에서 사야겠다 하시는 걸 보니 반찬통을 들고 올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겠지.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는 책 한 권 사서 보령으로 가야겠다. 나의 문학 소녀를 위하여.

|금성|

책으로 이어진 인연

이현숙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안방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숨기다가 화들짝 놀란다. 아마도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내게 줄 선물을 준비했으리라 짐작해본다. 남편이 사용하던 서재를 고 3짜리 아들에게 양보한 뒤로 그의 공간이 줄어들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기념일을 잊지 않는 그가 고맙기도 하고, 수험생인 아들에게 관심을 쏟느라 그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다. 복잡한 심정으로 방을 나가 다용도실의 선반을 열어 내가 마련한 선물이 잘 있는지도 확인해본다.

내가 숨겨둔 기념일 선물은 책이다. 그의 선물도 책일 것이다. 주머니가 두둑하던 시절에는 책과 함께 다른 선물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어려워진 사업을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올해 초에 사업을 접

게 되어 아마도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의 안타까움을 보듬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책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골랐다. 우리가 기념일 선물로 책을 주고받는 이유는, 첫 만남과 관계의 발전이 모두 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머리술 풍성하고 피부도 팽팽하던 시절, 우리는 공항리무진 버스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필리핀에서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무역회사에 다니는 그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학원에서 사용할 교재를 마련해가느라 나는 짐이 무거웠다. 버스표를 살 때, 단출한 차림으로 내 뒤에 서있던 그는 내가 짐칸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더니 자연스레 옆 좌석에 앉게 되었다. ‘짐 들어준 걸 계기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잠시 쓸데없는 걱정 내지는 기대를 했었나보다. 하지만 공항까지 가는 동안 그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공항에서는 그저 카트를 가져와 다시 내 짐을 실어주었다.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그의 목적지를 물었다. 마닐라와 상해로 목적지는 달랐지만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어 탑승수속까지 함께 마친 후, 그제야 그가 차나 한잔 마시자고 했다. 음료를 시켜주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그의 손에 책 세권이 들려있었다. 공항 간이서점에서 사온 <행복이 가득한 집>, <좋은 생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 1>이었다. 그렇게 명함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인연이 이어졌다.

그가 사준 잡지 두 권은 학원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행복이 가득한 집>의 포근한 화보사진과 <좋은 생각>의 사람 사는 이야기들은 한글 활자가 고픈 교민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모여앉아 잡지를 펼쳤고, 아이들을 데리러 오거나 상담을 온 학부모들도 잡지의 사진과 글에서 잠시 위안을 얻었다. 잡지가 너털 너털 해질 즈음, DHL로 다음 달 잡지와 <세상의 모든 딸들 2>가 도착했다. 학원교재 때문에 자주 한국을 다녀오던 나는 다음번의 일정에 그와의 만남을 추가하게 되었다. 다시 만났을 때, 사례의 표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과 <좁은 문 이야기>를 그에게 선물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내 선물을 받았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의 취향과는 많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별로 과묵한 성정도 아니었다. 처음에 공항리무진에서 아무 말도 안했던 것은 내게 호감을 줄 작전을 구상하는 중이었고, 책을 선물한 것은 다른 것을 사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였고, 그 책들을 고른 이유는 서점의 제일 앞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잡지는 원래 있다가 없으면 아쉽고 또 두 권짜리 책은 2권의 내용이 반드시 궁금했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웬지 알밋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인연을 이어오다 1년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둘 다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노처녀, 노총각이었기에 양가 부모님들은 무척 기뻐하셨다. 나는 필리핀에 있는 학원을 지인에게 양도하고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서둘러 아이도 가졌다. 잠시 외

국생활을 하느라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은 평화로웠다. 남편은 사회과학 책을 좋아하고 나는 문학책을 좋아하지만, 서로가 취향을 강요하거나 폄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에 한번 결혼기념일에는 상대방의 취향대로 골라주는 책을 기꺼이 읽었다.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결혼생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만삭의 나를 위해 그가 발음이 꼬여가면서 서정주의 ‘상리과원’을 연달아 읽어주던 순간의 기억으로 가끔씩 그에게 섭섭한 경우들을 전해주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하여 세상살이가 한없이 팍팍할 때, 그는 내가 사주었던 정호승의 ‘수선화’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유년기를 집 앞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서 보낸 아들은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해마다 독서 왕으로 뽑혔으며, 부모의 취향을 모두 물려받아 문학책과 사회과학 책을 고루 좋아했다. 독서는 물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과학교실과 예술교실 등 갖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사교육 없이 자랐다. 사서선생님의 권유로 초등4학년 때부터 시작한 기자단활동을 통해 글쓰기 실력이 탄탄해졌을 뿐 아니라 다방면의 경험과 열린 자세로 토론에도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다보니 외국어도 잘 한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여 인근의 도서관에서 번역봉사를 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자료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엉덩이가 무겁다보니 운동에는 쥔병인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은 모든 것

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어떤 사람은 나의 신념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태도를 비웃는다. 선택과 만족의 문제일 뿐, 양육과 교육의 방식에 정도는 없다. 나 스스로도 아이를 도서관에서 키우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서울하고도 강남에 살았을 때에는 아이 친구들이 모두 대치동으로 가는 것을 보고 흔들리던 순간이 갈대처럼 많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염두가 나지 않았고, 이미 진도가 너무 늦어 웬만한 학원에는 내 아들이 들어갈 반이 없다는 슬픈 현실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므로 아이가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은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대와 두려움의 무게가 깊어지면서 잠들기 어려운 밤이 점점 많아진다.

각자 선호하는 책이 다르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여러 번 읽은 책으로는 <삼국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삼국지>는 항상 가족 대화의 일부가 된다. 일상에서 겪는 여러 일들에 <삼국지>의 일화를 대입시키는 것을 우리는 즐긴다. 어려운 실물경제와 지긋한 나이 탓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아빠에게 아들은 ‘삼고초려’는 기본이라며 위로를 전한다. 막바지 공부가 힘든 아들에게 아빠는 공명이 유비에게 닥칠 위기를 예감하고 조자룡에게 비단주머니를 주었던 것처럼 개그를 적은 주머니를 건넨다. 아빠의 아재 개그가 너무 썰렁한데 한편으로는 어쩐지 슬픈 기분이 들어 아들은 잠

이 확 꺾다고 한다. 부부싸움 끝나나 아들에게 심한 잔소리를 하고 나서 분위기를 바꾸거나 어색한 대화의 물꼬를 틀 때면, 나는 짐짓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장비가 고함을 질러 조조의 군사를 돌려보낸 다리 이름이 뭐였지?”라고 툭 던진다.

이번 기념일 선물로 나는 김훈의 <자전거 여행>을 골랐다. 예전에 <칼의 노래>나 <남한산성>같은 책을 선물했을 때, 남편이 작가의 남성적이고 담백한 문체를 좋아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활비가 어려워 자동차까지 팔아버린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자전거 여행에 대한 여유를 보태주고 싶기도 했다. 여태껏 살아온 가장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남편이 과연 어떤 책을 골랐을지 무척 궁금하다. 그저 밝은 내용의 책이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책으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내 아들도 앞으로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부려본다.

은성

소리

김미자 경북 경주시 시래동

고여 있는 물은 말이 없다. 삶도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흐를 때 소리가 난다. 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흐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흐른다는 것은 숨을 쉬며 살아내고 있다는 건강한 몸짓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삶이란 물처럼 날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기나긴 소리인지도 모른다.

가끔은 여울을 만나서 힘차게 흘러가도 좋으리라. 여울은 혼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흘러온 물이 여럿이 만나서 세차게 흐르는 곳이다. 여울의 풍경은 오감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여울에 블랙홀처럼 빠져든다. 내가 그랬다. 그들도 그랬다. 나와 그들에게 삶의 여울은 독서토론인 듯하다.

목요일은 함께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는 날이다. 동네에 있는 작

은 도서관이 우리들의 여울이다. 나는 가슴이 설레서 밤새 잠을 설쳤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분 좋은 설렘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소리다. 나는 오늘도 팔딱팔딱 꿈틀대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장 먼저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들이 먹을 간식을 챙기고 커피 한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초록 새싹이 춤을 추며 웃고 있다.

새싹들이 하나 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새싹이 하나, 새싹이 둘, 새싹이 셋…….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새싹이는 내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다. 아직까지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다. 지금처럼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참 좋다.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오늘 온 새싹이는 열 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어린 새싹이다.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새싹처럼 살아가는 시간이다.

오늘 토론할 책은 신영복의 「담론」이다. 작가의 삶처럼 무겁고 진지한 책이다. 그 전에 읽었던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시작된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담론」에서도 이어졌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 책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할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들려줄 소리에 마음이 모아진다. 내 눈은 궁금함으로 밝아지고, 귀는 가장 크게 열린다.

삼십 년 넘게 노동운동을 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소리로 독서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는 대기업의 노조대표를 맡고 있다. 그가 노동현장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과 평생 교도소에서 지켜온 신영복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용자 언니는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 책이었다고 했다. 언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 생활을 했고 독방에서도 6개월 넘게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 언니의 소리를 들으며 노동운동을 하던 스무 살의 나를 만났다.

우리 역사와 고전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금이는 신영복이 중국 고전만 좋다고 해서 아쉬웠다고 했다. 난이 언니는 신영복이 갇힌 생활을 너무 오래한 이유로 감시에서 자유로운 진솔한 글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며 신선한 생각을 전해주는 미희는 신영복이 바라본 기부에 대해 비판했다. 김밥 할머니의 기부와 기업가의 기부는 다 존중받아야 하는데 신영복은 김밥 할머니의 기부만 긍정적으로 쓴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가장 즐겨워하는 숙이 언니는 이번 책이 너무 좋아서 열 장이 넘게 옮겨 적었다고 했다. 신영복처럼 훌륭한 분이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오늘도 그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들의 소리는 반평생 살아온 삶이 녹아 있어서 더 감동적이다. 이십 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책을 읽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나라의 곰국소리를 먹고 살았다.

요즘은 독서밴드에서 날마다 사유와 필사를 한다. 책속에서 좋은 문장이 나오면 필사를 하고 주제를 하나 정해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들의 사유를 읽는 시간은 독서토론 이상으로 즐거운 일이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각을 나누는 것

은 참 고맙고 소중한 일이다. 누군가 사유를 달 때마다 밴드 알림음이 울린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살리는 풍경소리가 되었다. 날것으로 팔딱거리던 내 가슴이 숨죽이고 익어가는 시간이다. 혹시나 지금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모두 다 그들이 들려준 소리 덕분이다. 나에게 독서토론은 좋은 세상으로 가는 소리가 되었다.

오래 전 독서토론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픈 아들만 보였다. 초등학교 학생 아들이 갑자기 삼 년 넘게 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네에 어린이 책 전문서점이 있었다. 그곳에서 운영하는 ‘동화 읽는 어른모임’이었다. 걷지 못하는 아들에게 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모인 엄마들이 동화를 읽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소리를 만들어 주는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은 아들과 나에게 삶의 여율이 되었던 곳이었다. 그때 맛본 여율소리 덕분에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흐르고 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독서토론이 내 꿈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 그때 읽었던 책속에서 어릴 적 꿈꾸었던 글쓰기 선생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나만을 위한 공부가 시작되었던 날이었다. 독서토론을 만난 인연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쓰기 선생님이 되었다. 아이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재밌어서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독서토론과 글쓰기 수업은 소리로 세상을 듣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었다.

독서토론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건강하게 가꾸는 가장 믿음직한 소리다. 여율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건강한 소리가 난다. 함께 모여서 신나게 흐르는 소리는 힘들 때 견딜 수 있

는 응원가가 된다. 인문학은 사람의 소리를 경청하면 알게 되는 소리 학문인 듯하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 짖는 소리도 법문이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들으면 경전도 소음이다. 어떤 소리든 잃어버린 자신의 소리를 찾게 해주면 법문이다. 어쩌면 소리의 앵무새가 되지 않고, 내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마의 새로운 진로탐색 '엄마의 20년'을 읽고

류솔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대구 코로나가 아기엄마에게 미친 영향〉

지난 몇 달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2020년 2월 당시 18개월, 44개월의 두 아들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집안에서만 돌보는 일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든 일이었다.

2월 한 달은, 봄이 되면 추위와 함께 코로나도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베란다 창문에 매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발걸음을 눈으로 따라가며, 대리만족하며 지냈다.

하지만 2월 하순경,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타나고 다음 날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나는 정말 정신적 패닉에 빠

진 듯했다. 외출하기를 좋아하는 둘째가 중문 근처에만 가도 "안돼" 소리치며 두 달간 아이들을 현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보내지 않았고, 나 역시 일주일에 단 한 번 아이들에게 좋은 고기를 사먹인다는 핑계로 20분 이내의 장을 보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

5월이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친정을 시작으로 조금씩 외출을 했지만, 그동안 쌓인 우울감이 단번에 해소되지 못하는 건 당연했다.

아이 둘을 가정보육한 지 다섯 달째,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정도가 자꾸 심해진다. 어느새 나는, 아이가 없을 때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화내는 엄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온 힘을 다해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 말대로 우울증약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정신과도 그냥 한 병원일 뿐인데, 거기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알지 못하는 울컥함이 올라왔다.

〈결혼 후 페미니스트가 되다〉

결혼 전 친정엄마는 나에게 요리나 빨래 돌리기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집안일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설거지도 거의 시키지 않으셨다. 내가 눈치껏 한 적은 있어도 엄마가 나에게 강요하신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으라고 하셨다. 이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 벌고 하는 시대이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일부터 아무것도 안 가르쳐놓고,

아무것도 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신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마음 넓은 표정으로 “앞으로 배워서 하면 되지요” 하신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거실에 둔 채 나만 주방으로 부르시는 시어머니는,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로 나에게 “앞치마 두 개 중 뭘 할래?”하셨다.

첫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입원해있던 7일 중 5일을 방문하셨다. 조리원으로 이동한 뒤에도 시아버지께서는 “내일 또 올게” 하셨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아주 잠깐 있다 가시는데 그 정도도 어른을 배려해드리지 못하냐”고 말했다.

물론 안다. 친정엄마의 예의상 하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시어머니의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말씀도, 시아버지가 손주를 보신 기쁨에서 한 행동도, 남편의 효성스러운 착한 마음도, 모두 쉬이 이해하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 나는 왜 불편할까. 왜 나는 자꾸 거슬릴까. 이런 내가 모난 사람인 걸까.

남편은 내게 말했다. 페미니스트였냐고. 글썄 나는 페미니스트에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그 의미조차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확실히 “페미니스트” 비슷하게는 된 것 같다.

〈동아출 〈엄마의 20년〉을 만나다〉

결혼 후 양가에 방문할 때마다 부부는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나는 다 자란 성인에서 아기처럼 보호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가 되기도 했고, 육아를 거듭할수록 그동안 내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나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어느덧 우울증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슬픈 것은 약 말고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혼 후 태세를 전환해 내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만을 바라는 친정엄마는 아마도 나를 힐난할 것이고, 친한 사촌 언니는 나를 위로하는 가운데 워킹맘으로 힘든 언니의 하소연을 꺼내놓으며 끝내는 “그래도 어찌겠니,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을” 할 것이고, 늘 그렇듯 남편은, 물론 모두 선의로 꺼내놓는 말들이지만, 내가 보기엔 ‘되지도 않는 해결책’만을 내놓을 것이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맘카페에 올려보았다. 해결책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순간의 위로라도 받고 싶었다. 여러 댓글 중 “〈엄마의 20년〉 읽어보세요.”라는 담백한 댓글이 있었다. 뭐 맘카페에서 추천하는 여타의 육아서와 다름없겠지, 그래도 이틀 치의 위로 정도라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사서 읽어보았다.

하지만 그 책은 달랐다. 그 책은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 주었다.

사랑하는 나의 시스터, 당신은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목차를 지나 가장 처음 나오는 이 말에서부터,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한 존재였다.

아이를 낳은 뒤 친정엄마는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니가 어디 있니? 너는 이제 엄마다.” 그래 아이를 낳은 뒤 나는 그저 엄마이기만 했다. 그리고 내 우울증의 근원은 내가 오로지 엄마이기만 해서였다.

그동안 콧 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아니 콧 집어 말하면 뒤편 비탄들이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내가 겪었던 수많은 가슴 속 분노와 답답함들을, 작가는 내 눈앞에 속 시원히 꺼내놓아 주었다. 그리고 해체해 주었다. 또한, 나아 갈 삶의 방향도 너끈히 제시해주었다.

딸의 성장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정엄마들은 ‘나를 위하지 않는 것=희생=엄마 역할’이라고 몸소 보여주셨지요. 그건 당시의, 당신들의,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최선이 될 수는 없어요. <종락> 시대가 바뀌면 엄마의 이상적인 역할도 바뀐다는 것.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나는 친정엄마가 불편해졌다. 친정엄마만큼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지만, 왜인지 엄마의 말과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책을 통해 이유를 알았다. 나는 ‘친정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아이의 식탁에 반찬 한 가지를 더 얹어주는 엄마보다, 아이가 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엄마가 먼저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엄마가 배우고 도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더이상 전통적인 엄마상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전통적인 엄마상을 가뿐히 뛰어넘어 새 시대가 원하는 엄마가 되어보자는, 오소희 작가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그동안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나를 구원해 올려줄 동아줄 같이 느껴졌다.

〈마흔을 앞둔 엄마의 새로운 진로고민〉

벌이가 나쁘지 않은 남편은 나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니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나 역시 계산상 그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 월급은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학원과 가사도우미에 들어갈 것이고, 체력이 매우 약한 나였기에 워킹맘이 되었을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은근히 전업주부를 바랬던 남편의 뜻도 존중해주고, 체력적으로 나도 편하고, 아이들도 언제나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래 내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영양가 있는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부산한 아침을 서포트해주고, 씻을 모두 보낸 뒤 홀가분한 한숨을 내뿜으며 청소를 하고, 아이들이 갈 학원 시간들을 체크하고, 그 와중에 더 좋은 학원을 탐색하고, 다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고 숙제를 체크하는, 긍정적으로 말해 남편이 편히 돈을 벌 수 있게 내조하며, 사랑하는 아이들 교육에 충분히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삶.

그런데 나는 그 삶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내가 아닌,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는 삶,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이들이 되는 삶, 나만의 창조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삶. 내가 가장 소질도, 관심도 없는 집안일과 요리가 내 주업이 되는 삶. 도저히 그런 삶은 내가 살아내질 못할 것 같았다. 아무리 계산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그 삶을, 내가 평생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엄마의 20년>은 나의 그 계산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이상적이지 않다고, 아니 아주 후진적이고 미개한 선택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그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내 삶을 결정한 것이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이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잘 내재화시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연이길 포기하고 조연만으로 존재하려했던 나를 넘어서, 나는 마흔에 이르러 새롭게 나의 진로를 탐색해본다.

나는 더이상 아이를 어떤 유치원에 넣을 것인가, 어떤 사교육이 좋은가, 아이 유치원 설명회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 열정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나에 대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내 삶에 대해 그렇게 고민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되살아났다. 그동안 아이들로만 가득 찼던, 나는 빠져있었던 내 삶에 다시 나를 채워 넣으며.

<엄마라서 더 잘해낼 수 있다>

사람들은 엄마들에게 끝났다고 쉽게 말합니다. 이제 흑이 달렸으니 재미는 다 봤다고. <중략> 임신, 출산, 육아라는 강도 높은 인생 수업 과정에서 엄마들은 어마어마한 인류애적 성장을 합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파스해지죠. 그 성장은 엄마가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 거대한 자산이 되어줍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교사생활을 할 때 아이들이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별로 하루 종일 양말만 신고 생활하게 했다. 다른 선생님들도 대체로 그런 벌을 주었는데, 어느 날 또래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께서 “나는 마음 아파서 그렇게 못하겠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엄마가 되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파스해진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엄마라는 경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끔 한다. 이제 그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보

다 발전적인 방식으로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

나쁜 운이 몰려다니듯 좋은 운도 함께 다니는지, 오소희 작가의 카페에서 무료 코칭의 기회를 얻었다. 아직 아이 둘을 가정보육 중이라 시간이 부족하기에 사실 무료여도 망설였는데, 도전해보길 정말 잘했다. 첫 코칭 삼십분만에 내 진로 고민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

코치님은 내가 바라는 십 년 후의 모습을 말해보라고 했다. 꽤 신중한 성격의 나인데 이상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이 나왔다.

“아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진 엄마”

내가 박사 논문을 쓰든, 내 원래의 직업으로 살아가든, 또는 그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어찌면 모두 수단일 뿐이다. 내가 내 아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결국 나는 내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 나를 돌보고 나를 찾고 나를 꾸려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엄마가 된 이상, 엄마라는 이름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 나는 그 책으로 인해 내 삶의 각도가 90도쯤은 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한결같이 “아이들”이었다.

다만 그 아이들을 위하는 방식은 이전과 거의 180도 달라졌다. 아이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기 위해서 콩무니를 줄줄 따라다니고,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을 때면 나의 요리 실력에 대해 자책했던 엄마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나를 공부하고 세상을 공부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믿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먼저 내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는 엄마이기에, 이 모든 걸 이전보다 더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육아(育我)의 진정한 의미, 아이와 함께 ‘나(我)’가 성장하는 엄마가 될 것이다.

당신의 북킷리스트

이소영 포항시 북구 환호동

작년 여름의 더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심한 입덧으로 밥을 먹지 못한 채 6킬로 가까이 빠졌다. 내가 이렇게 못 먹는데 아이는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먹고 비워내기를 반복했다. 회사에 가서도 증상은 똑같이 나타났다. 향수 냄새, 음식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 등 세상의 모든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다. 결국, 남편은 베란다에서 밥을 먹었다. 최대한 집에 아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지했다.

냄새가 사라지니 조금 살만했다. 가만히 있다가도 음식 생각이 나면 속이 울렁거렸다. 어딘가에 몰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파 옆에 남편이 보다가 덮어둔 책을 무작정 집어 들어 허겁지겁 읽기 시작했다. 내면에 갈증이 있었는지 활자를 삼킬 듯이 읽어나갔고, 책에 온전히 몰입된 채 1시간이 훌쩍 지났다. 책 읽는 1시간 동안 입덧과 무거운 몸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날 겪

었던 신선한 경험을 남편에게 말해주었더니, 남편이 조용히 방에서 책 3권을 가져왔다. 골라온 책들도 오늘 읽은 책과 비슷한 종류라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며 추천해줬다.

남편은 늘 독서 목록을 갖고 있었다. 책꽂이 한 코너에는 자신의 ‘인생 책’이라며 아끼는 책들을 모아놓았다. 그 코너의 이름은 ‘버킷리스트’를 변형한 ‘북킷리스트’였다. 남편의 책에 대한 애정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잠자기 전 꼭 30분간 책을 읽는가 하면, 이사할 때도 옷보다 책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책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에 신난 남편은 동네에 있는 북카페에 가자고 제안했다. 웬지 도서관처럼 딱딱한 분위기일 것 같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간절한 남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어 다음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아도 편안하게 쉬다 오면 된다고 설득했고, 마지못해 따라갔다.

북카페는 큰길에서 저만치 떨어진 건물 3층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LP판의 소리골을 긁으며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널찍한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었다. 난생처음 가보는 북카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재미있게 책을 읽었다. 태교와 관련된 책, 육아와 관련된 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시행착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 투자한 시간이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벌여준 셈이다. 소파에 기대어 뱃속 아기에게도 나지막이 책을 읽어주

었다. 고요한 클래식 음악과 친근한 나의 목소리를 들은 아기는 좋은 기분을 규칙적인 태동으로 표현했다.

출산이 가까워 몸이 무거워졌다. 집에서 하루 20분간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태교를 위한 탈무드부터 시작해 다양한 이야기책을 아기에게 들려주었다. 아기는 낮에는 엄마의 목소리, 밤에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나올 준비를 했다.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었지만 실은 아기뿐만 아니라 나에게 책을 읽어준 것이었다. 동화를 다시 접하면서 어릴 적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내가 느꼈던 순수한 감정들이 떠올랐고, 그 당시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화물차 운전을 하셨던 아버지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셨지만, 금요일 저녁마다 나를 데리고 서점에 갔다. 금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서점은 나에게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여러 종류의 동화책, 만화로 된 역사책 등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었다. 아버지는 주로 문학 코너에 머무르셨다. 아버지의 독서 목록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한 시간 정도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아버지는 매번 “사고 싶은 책이 있니?”라고 물으셨다. 고민 끝에 고르고 골라 한 권을 샀다. 내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후보 책들을 쭉 훑어보신 후 “이 책이 더 좋겠다.”라고 골라주시기도 하셨다. 누런 봉투에는 아버지의 책 한 권과 내 책 한 권, 그리고 책을 빨리 펼쳐보고 싶은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주신 책을 주말 내내 읽었다.

아기는 열 달 뒤 세상으로 나왔다. 출산 후 남편은 틈틈이 도서관에서 육아 책을 빌려 읽었고, 좋은 내용을 정리해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책 읽어주기의 기적>에서 소개된 미국 소아과학회의 발표 내용이다. 학회에서는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생후 36개월 이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기에 부모가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면 아기의 뇌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했다. 부모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면 아기는 부모의 사랑과 체온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기에게 읽어줄 책을 남편과 골랐다. 신생아의 눈높이에 맞게 그림이 크고 색깔이 선명한 책 여러 권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남편과 책을 고르던 중 어릴 적 아버지가 내가 고른 책을 살펴보시며 골라주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생 시절까지는 줄곧 주말마다 서점에 갔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을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서점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에 아버지가 오랜만에 서점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때 한창 신혼여행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오후에 남편과 카페에 가서 신혼여행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려고 했다. 이날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었다.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며 서점에 가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책을 고르다가 나의 거절에 돌아서시던 아버지의 나이드는 뒷모습과 어릴 적 책을 골라

주시던 젊은 아버지의 앞모습이 떠올랐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그만큼 나이 드셨다는 사실이 괜스레 서글퍼졌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독서 교육은 자연스레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남편은 내 생각을 더 선명하게 완성해 주었다. 책 읽으라는 말 대신 함께 서점에 가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신 아버지의 모습처럼 나 역시 아이에게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며 책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이번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기를 데리고 서점에 가리라 다짐한다.

|동생

이사

김민정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십 년 가까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냈었다. 이년이 넘도록 꿈쩍도 하지 않아 이도 저도 못 하겠다 포기할 무렵 거짓말처럼 집이 팔렸다. 집을 줄여 이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손에 들어오는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곧 남편의 정년 퇴직이다. 아이들이 어리고 어른을 모시고 살아야 했던 시간 동안에는 형편에 맞지 않았으나 다소 큰 집이 필요했다. 함께 사시던 어머니를 형님네에서 모셔가고 두 아이가 스무 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나니 딸아이는 독립했고, 이제 막 국방의 의무를 마친 아이는 우리 곁에 남았다. 다소 큰 집을 끌고 댕크라 무릎이 나가는지, 손목이 시큰거리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왠지내끼 내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온 마음 다 담아 사느라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도 없는 곳인 줄 알았다. 딸아이가 독립하고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이 쌓여 가면서, 위

층 누군가 화장실 드나드는 소리에 벌떡 몸을 일으키는 나 자신에게 놀라며 이제 집이 팔렸으면 했다.

지금껏 살아온 아파트에 비해 삼분의 일 정도 줄여 가는 이사다. 버려지는 짐이 많았다. 장롱 대신 행거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장롱은 일찌감치 포기하였다. 아이들 상장과 상패를 얹어 두었던 장식장을 지정된 장소에 옮겨 두었더니 그날로 바로 새로운 주인이 데려갔다. 소파와 서랍장, 책꽂이, 해마다 봄철이면 부지런히 맞아들였던 많은 화분들이 제각각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났다. 그동안 덕분에 감사히 잘 살았다. 메마르지 않고 편협 되지 않고 좋은 냄새 맡으며 따뜻하고 소담하게 잘 살았다. 묻지도 않고 무조건 데려와 아무 곳에 얹혀 놓았어도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면 꽃을 피워 보게 해 주고 고운 향을 곳곳에 날려주며 우리를 위로해 주었는데, 다시 묻지도 않고 함부로 내놓으니 야박하다 하겠다. '버려지는 살림만 가지고도 한 살림을 차리고도 너끈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돌아오는 마음이 허전했다.

딸 아이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꽂이 앞에 문득 멈춰 섰다. 어떡하나. 붙박이니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 해도 안성맞춤으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사 갈 집에는 데려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아깝다는 미련이 자꾸만 고개를 든다. 십 년도 더 지나 어느 해였던가, 모 신문사에서 '거실을 서재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었

다. 거실에 텔레비전 브라운관 대신 책장을 만들고 빼곡히 책을 꽂아두고 온 식구 웅기충기 모여 앉아 책을 보자고, 저마다 각자의 사연으로 응모를 하고, 사연이 뽑히면 거실 가득 책장이 생기는 탐나는 행사였다. 집에 책을 좋아하는 이가 있고, 책을 읽히고 싶은 이가 있었기에 나름 열심히 응모해보았으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행사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에 없으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거실 가득 책장은 갖지 못하였다.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행사는 끝나버렸다. 거실 가득 책을 가지게 해 주겠다고 엄마로서 나름 큰 소리로 약속해 두었기에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생활비를 쪼개어 벽면 가득 책장을 꾸미기로 했다.

책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더 즐겨보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거실을 서재로 바꿀 수는 없었다. 대신 딸 아이 방을 손보기로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편으로 가득 책장을 만들기로 했다. 평소 책을 즐겨 읽는 아이에게는 마치 몸에 맞춘 옷을 입혀 놓은 듯 자연스러웠다. 아이는 읽고 쓰는 일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 일기는 거의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쓰는 눈치였고, 일기 아닌 무엇인가를 쓰고자 골몰할 때도 제법 있었다. 교내 글짓기 대회라든가 학교 명예를 걸고 대표로 참석한 공모전에서 당당히 수상하기도 하였다. 작가가 되려나, 외교관이 꿈이라 하니 여러 국가를 다니며 사진 찍고 글 쓰며 사는 삶도 유쾌하겠단, 사뭇 아이가 자람에 조금씩 기대하게 되었다. 책 발에서 아이는 무탈했고, 잘 웃었다. 평온했다.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책방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본인의 방이니, 좋아하는 책을 보고자 함이니 참견할 일은 아니었으나, 책을 핑계로 점점 침묵하는 아이가 얼마간은 걱정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내 방안에만 머무르고, 새벽까지 잠들지 않는 아이를 모른 척 지켜보면서 사춘기라면 잘 지나주기를 바랐다. 같은 책이 오랜 시간 책상에 놓여 있고,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페이지가 펼쳐있는 책을 목격하였다.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인지 아이가 책을 읽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돼?” 청천벽력 같은 말을 아이가 내게 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다. 이유를 쉽사리 설명하지 않는 아이를 붙잡고,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삼복더위 한복판에 아이는 늘 긴소매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이유조차도 몰랐다. 그저 맨살을 내놓고 다니기가 새삼 부끄러운가 보다 했었다. 아이의 알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나는 사춘기니까, 지나는 과정쯤으로 생각했다. 손목 위 어지러운 상처를 감추고자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을 몰랐다. 슬한 괴롭힘과 말들에 맞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책 한 줄 단어 하나 제대로 읽어나갈 수 없는 아이의 상태를 몰랐다. 아이 몸을 할퀴고 지나간 어지러운 상흔 앞에서야 아이에게,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뿐이었다. 다른 어떤

탐함도 사치였다. 절차상 중학교는 졸업했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 달 후 아이는 학교를 벗어나 집으로 왔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공부는 하지 않고 밤잠 설쳐가며 소설이나 보는데, 머릿속에 공상만 가득하지 공부가 되겠느냐고 어머니는 나를 몰아세우셨다. 책꽂이며 책이며 온방 가득 꾸며놓고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려 하겠냐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아이에게 책방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며 좀처럼 어머니는 화를 풀지 않으셨다.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인 책방이 어머니의 날선 힐난에 마구 흔들렸다. 아이를 망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어미인 너 때문이다. 어머니는 주저 없이 나를 가리키셨지만 난 단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말해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우선 나 자신부터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할지 자신이 없었다. 처음 가보려는 길이기에 온통 낯설기만 하였다.

소설이 읽고 싶어 자퇴생이 된 것이 아닌 아이는, 할머니의 오해에서 비롯된 억측들과 나의 유난함을 묵묵히 견뎌주었다. 학교만 다니지 않게 허락만 해 준다면 공부는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도 하였다. 아이는 자퇴한 이듬해 검정고시를 치르고, 열아홉 때 친구들이 수능을 볼 때 아이도 함께 수능을 치르고, 국립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아이의 진심을 증명하였다. 아이가 태어나 열여섯이 될 때까지는 내가 돌본 게 맞지만, 그 후 삼년동안은 아

이 스스로가 책방에 웅크리고 앉아 뿔속까지 단단하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자랐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면 책을 벗 삼아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할머니 무한반복 말씀들로부터는 책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었다. 그래도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아이다. 할머니 끝없는 훈화 말씀은 어느 순간 빛을 잃었을 것이다. 책 속 세상이 아이를 위로해 주었을 것이다.

대학교 4년 시간을 마무리하고 아이는 온전하게 독립했다. 처음에는 책장만 덩그러니 아이 방에 들어왔는데,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 내면을 성장시킨 책들이 책장 가득 쌓였다. 아이는 떠났고, 아이 방에 나는 남았다. 많은 짐들을 처분하였지만 책장과 책들만큼은 집 밖으로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 나에겐 단순히 책장만이 그저 책들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책장은 어찌지 못해도 책들은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집이 아무리 비좁아도 어느 한구석 쌓아놓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때론 아이 책을 읽으며 아이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 집으로 이사 오게 될 젊은 부부가 정식계약 전 집을 방문했다.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이것저것 필요한 의논이 많았다. 아이의 방 책장 앞에 문득 멈춰 선 이들 부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책장도 가져가시냐고...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생, 아래로 미취학 자녀 둘, 아이 셋을 둔 젊은 엄마 아빠의 눈에 단연 돋보이는 쓰임이 많은 책장임은 분명하다. 불박이 책장은 벽에서 떼어내는 즉시 본

연의 가치가 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애써 나의 본심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있어 책장 이상 의미의 물건이 이 집에 계속 남아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했다. 젊은 부부 요구대로 불박이장과 아이 방 책장은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책장을 두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기에 나도 함께 머리 숙여 인사하였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어찌면 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빨강, 파랑, 노랑, 연두색 이삿짐 보관 상자 열 개를 주문해 주었다. 책을 넣어보라고 했다. 행거 주변 적당한 자리에 상자들을 쌓을 테니 책은 나눴하지 말고 가져가자고 했다. 이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사하고 얼마 후 남편은 정년퇴직한다. 곧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 나는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우리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남편을 도울 것이다. 어찌다 저녁 고단한 하루를 무사히 보낸 기념으로, 책 박스에 기대어 책 냄새도 맡을 것이다. 마땅한 책을 꺼내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탐독할 것이다. 아이가 읽었을 페이지들을 뒤쫓아 가며 아이가 무엇을 상상하였을까 차곡차곡 이야기들을 만들어 둘 것이다. 그렇게 아이를 기다릴 것이다. 훗날 언젠가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한히 나눌 수 있는 날들을 그리며.

기억

김형미 대구 달서구 이곡동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었다. 거의 일주일째다. 감금 아닌 감금상태가 시작된 지가. 도시에는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2월의 매서운 꽃샘바람에 너털대며 가쁜 호흡을 이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코로나는 순식간에 대구시 전체를 화마처럼 집어 삼켜 버렸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외출을 할 수도 없었다. 생필품 구입은 오로지 더더진 온라인에만 의지한 채 온갖 신경을 날마다 쏟아지는 환자 수에 곤두세우며 하루하루를 숨죽이고 있었다. 그 즈음이었다. 하늘이 유난히 흐리던 그 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며칠 전 위독하다는 통고를 받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 받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하루 만이라도 코로나 사태가 잡히길 바라면서 모든 촉각을 병원 소식에만 집중하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거의 일주일의 흘러 갈 즈음 아버지는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어찌 말이나 글로 그때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서두르는데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구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무슨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터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발인하는 날 화장터 야외에서 보기로 하였다.

운구차가 들어오고 관이 내려지는데 가슴이 먹먹해 온다. 불과 두 주 전 설 명절에 웃으며 뵈었던만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모습으로 저 작은 공간에 호흡도 없이 누워 계시다니 말조차 나오지 않는 황망함에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관이 화장방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은 일사분란하게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내 손을 스치기만 하는 화살처럼 지나갔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때 아닌 장대비가 쏟아졌다. 순간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 떠올랐다. 십대에 처음 이 소설을 읽고 무미건조하게 나열된 이야기에 참으로 괴이함을 느꼈었다. 이후 이십대에 인생에 남겨진 수수께끼를 풀 듯 다시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어렵פות이 실존이라는 벽 근처에서 서성거린 기억이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심중엔 온갖 어휘들이 쓰나미 일어나

듯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정작 입 밖으로 한마디도 튀어 나오지 않는다. 그 뒤엎킨 언어의 실타래 속을 헤치고 오로지 떠오르는 건 코로나, 코로나였다. 이 막막함은 자식이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코로나 사태로 끌어 들이는 합리적 의심에 다다르고 그 순간 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호통불과 백열전구가 공존하던 나의 어린 시절, 가끔 큰 도시로 나가셨다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손에는 늘 책이랑 신기한 문구류가 들려져 있었다. 작은 강이 돌아 나가고 단석산 기슭에 자리한 내가 살던 작은 시골마을은 겨울이면 무릎을 덮을 정도로 눈이 내렸다. 산토끼가 먹이를 구하려고 내려오면 동네아이들은 삼삼오오 토끼를 쫓아다녔다. 그러다 지치면 돌아와 사랑방 아랫목에 누워 책을 읽었다. 책 속에는 그렇게 쫓아다니던 토끼가 시계를 차고 나와 사람처럼 말을 했다. 우리가 사는 동네 뒷산은 김유신 장군이 칼로 바위를 자른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초등학교 도서관에 걸려 있던 선해 보이던 아저씨 사진이 박목월 시인의 고향이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톰 소여의 모험’은 흥미진진한 모험에 흠뻑 빠져 미시시피강 주변을 거닐게 했다. 흑인 톰 아저씨의 삶을 생각하며 평평 울었던 ‘영클 톰스 캐빈’은 노예해방운동을 처음 알게 해준 책이었다. 그렇게 아버지 손에 한 권 두 권 쥐어져 오던 책은 작은 시골 마을 귀퉁이에서 차츰 세상을 알게 해주었다. 책에 파묻혀 가졌던 상상 속 생각들을 글로 썼고 곧잘 학교 대표로 나가 수상을 하는 영광도 가졌다. 자라

서 대학을 도시로 오게 되었고 필기와 글쓰기 테스트를 거쳐 학보사 기자가 되었다. 그 당시엔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또래들은 젊은 패기로 세상을 다 갈아엎을 듯 사회주의 혁명서적들을 돌아가며 읽곤 했다. 마르크스, 레닌 등을 입에 올리며 품생 품사하던 선배들이 기억난다. 지금 생각하면 혈기만 왕성하던 모래위의 성이었다. 역사의 한 자락에 참여자의 시선으로라도 서있고 싶었던 건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에 읽었던 기억나는 책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지금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만 당시엔 금서에 가까웠다. 새내기 대학생인 나에게 처음으로 사회적 구조의 모순과 부조리에 눈뜨게 해준 책이었다. 이 외에도 ‘내가 알게 깨고 나온 순간’과 ‘마당을 나온 암탉’, ‘자기만의 방’등은 삶의 주체로서 여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을 알려 준 책들이었다. 그런 책들을 계기로 여성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졸업 후 잠시 관련 잡지사에서 일하는 경험도 갖게 되었다. 결혼을 하여 아이들의 엄마가 되면서 책의 방향은 아이들을 향하게 되었다. 날마다 잠들기 전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 주었고 아이들은 신기한 이야기에 질문을 해대다 잠이 들곤 하였다. 아이들이 좀 더 자라 권정생의 ‘강아지 똥’을 읽었을 때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고 소중한다고 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선 욕구를 잘 참았을 때 결과가 어떠할 수 있는지를 알았고 ‘어린이를 위한 배려’라는 책을 통해선 ‘배려’라는 어려운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잘 실천했는지 담임이 보내온 가정통신문에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적혀

져 있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의 지지로 반장을 맡기도 했다. 교육이란 것을 주입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책이란 것은 그렇게 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있었다. 어느덧 아이들은 다자라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하였고 첫째는 모 외국계 기업에 연구원으로 있고 둘째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다. 가정에서 교육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붉히는 다툼은 없었다. 태어나면서 집안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놓인 책들을 보며 아이들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 그렇게 책과 함께 성장했다. 지금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간혹 고민이 있어 상담을 해오는 학생이나 부모님들께 시기적절한 책을 추천해주며 아이와 함께 읽어 볼 것을 권한다. 내가 발견한 것을 그들도 같이 공감했음을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함께 있음을 느낀다.

불길이 멎고 화장방 철문이 열렸다. 하얀 재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유골함을 받아드니 따스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와 뒹었다. 왈각 눈물이 쏟아졌다. 책을 알게 해주고 나를 세상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 주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가슴에 따스한 온기 남기시는 아버지. 비가 잦아들었다. 산소에 정성껏 모시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나의 집엔 어릴 적 내가 보던 책들이 한 켠에 남아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물끄러

미 그 책들을 바라다본다. 이젠 영영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아버지는 책을 사오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책들과 함께 살아계신다.

법정스님이 생전 이끄시던 모임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날아왔다.

‘맑고 향기롭게’

또 읽을거리가 생겼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진달래꽃

이창희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아버지와 엄마는 늘 가난했다. 가난해서 집안의 큰 행사에 두 분이 같이 참석할 수가 없었다. 차비가 부족해서였다. 아버지의 여섯 형제 모두 부부가 참석한 잔치 사진에는 늘 아버지만 있거나 엄마만 있었다. 아버지 형제들을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 삼촌, 작은 숙모, 이렇게 짝을 지어 찾다 보면 우리 부모님만 외로이 아버지 혼자 계시거나 엄마만 혼자 사진 속에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

한 해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병이 났다. 병이 나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 엄마는 너무 많이 아파서 온 몸이 퉁퉁 부었는데 그때 엄마에게는 돈이 조금 있었다. 다가오는 할머니의 환갑에 금반지를 해 드리려고 엄마가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 돈을 달라고 했다. 그 돈으로 병원에 가자고 했다. 엄마는 울면서

안된다고 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금반지를 사 올텐데 엄마만 빈 손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엄마는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울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엄마에게 퉁퉁 부은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다고 화를 냈다. 아직 어렸던 엄마는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가슴아팠다고 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엄마는 너무 슬펐다.

두 분은 너무 가난했다. 그렇게 가난했는데 드디어 집을 샀다. 노란 대문이 있는 집이었다. 방이 세 개 있고 마당도 있었다. 그 집을 사고 나서 배를 타던 아버지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객지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우리는 우리집에 살았다. 저녁에 골목에서 노는데 친구들의 아버지는 퇴근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연산동에서 아버지 없이 늘 우리 다섯만 살았다. 밤이 되면 엄마는 늘 아버지가 안 계셔서 무섭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는 어둠 속에서 자는 우리를 보며 혼자 깨어있곤 하셨다고 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무서웠다고 했다.

아버지는 6개월에 한 번 집에 오셨고 집에 오시면 일주일 정도 방에서 잠을 주무셨다. 아버지 주무시니까 조용히 하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오후가 되면 일어난 아버지가 학교에 다녀온 나에게 산에 가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가게에 가서 가장 비싼 부라보콘을 사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산으로 산책을 가신다. 그리고 언덕 위에 도착하

면 나에게 구구단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오래 서 계셨다.

2학년 때 비가 오는 오후였는데 부모님들이 복도에 막 서 계셨다. 거기에 우리 아버지도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얼굴이 검었다. 나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아버지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왔다갔다 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야”하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언니 교실은 어디냐”고 물으셨다.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신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멀리 계셨다. 그렇게 가까이에 계시니 이상했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아버지는 객지에 계셨다. 아버지의 직업이 그러했다. 아버지는 배를 타셨고 배는 늘 멀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친구들의 아버지처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다. 친구의 아버지가 뚜벅뚜벅 퇴근하는 모습을 골목에서 놀다가 지켜보곤 했다. 어디선가 우리 아버지도 과자봉지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실 것만 같아서 골목 끝을 바라보곤 했다.

내가 여고생일 때 아버지의 배가 난파를 당했다.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다. 칠흙같이 어두운 밤에 아버지는 바다로 떨어졌다. 비가 쏟아지고 앞을 분간하기 어두운 밤이었는데 아버지는 해엄을 쳐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는 그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고 막내

딸이었던 내 생각만 났다고 했다. 내 얼굴이 그날 밤 그 어두운 바다에 환하게 떠올랐다. 아버지가 그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환하게 자라지 못할 내 얼굴을 떠올리자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나서 그날 밤 끝없이 해엄을 쳐서 어딘가에 닿을 수 있었다고 했다.

평생을 아버지와 엄마는 떨어져 사셨다. 견우와 직녀처럼. 가난한 견우와 가난한 직녀는 네 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때부터 가난한 견우와 가난한 직녀는 아버지와 엄마로만 삶을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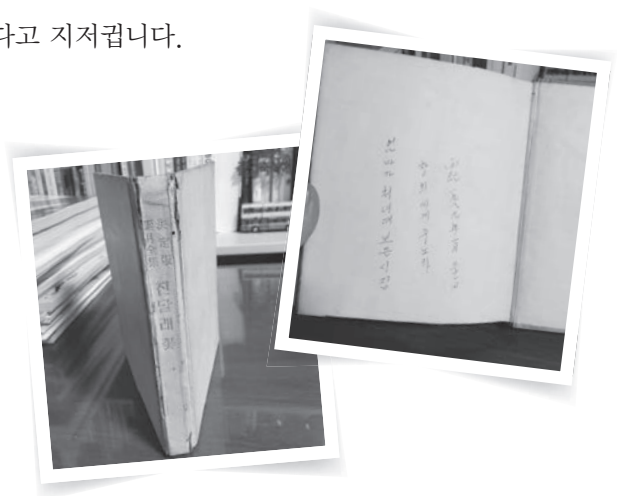
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지만 시를 좋아하셨던 엄마는 엄마가 평생 지니고 계셨던 1972년도판 진달래꽃을 나의 스무 살 생일선물로 주셨다. 엄마가 글자를 모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카드를 대신 적어 주셨다. 책에는 ‘엄마가 처녀 때 보던 시집을 선물로 주노라.’라고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자를 모르지만 시를 좋아했던 엄마는 특히 김소월의 시를 좋아하셔서 어린 나에게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은 잊었노라. 라는 시를 많이 들려주셨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김소월의 시를 배우면 낮이 익었다. 시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이지 페이지마다 엄마가 들려주시던 김소월의 시가 가득 들어있었다.

엄마는 소중한 건 모두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했던 아버지와 가난했던 엄마는 평생을 떨어져 살면서 자식을 키웠다. 손발이 부르토도록 일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가르쳤다. 막상 자신들은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떠나신지 오래되었다. 이제 생각을 하는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그래도 밤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 견우별과 엄마 직녀별이 지금도 환하게 반짝이고 있을 것 같다. 아버지와 엄마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을 것 같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다. 그렇게 가난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삶을 꾸리셨다. 오래되고 소중한 책 진달래꽃을 보며 아버지와 엄마를 떠올려 본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킵니다.



동생

책은 언제나 내 편이었어

정חק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천국은 다만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겠는가?

—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 중에서

6개월 된 아기를 맡기고 찾아간 도서관은 천국이었다. 아이를 낳고서야 비로소 나는 바슐라르가 왜 도서관을 천국으로 비유했는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오래된 책갈피가 풍기는 냄새는 어느 아름다운 향수만큼이나 나를 설레게 했고 알 수 없는 생기와 에너지가 마구 솟았다. 이즈음 나는 몸도 마음도 꿈쩍없이 욕아에 묶여 그저 매일을 살아내느라 벅둥거렸다. 아이 뒤통자끼리를 하다 보면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금세 갔고 나를 돌볼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되면서 명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살아감’이 처절하게 와 닿았다. 먹이고 재우고 똥오줌 갈아주는 것을 무한 반

복하는 생존을 위한 본능을 감당하는 것, 내 몸뚱어리 말고 다른 존재를 감당하면서 비로소 사랑이란 그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도 변해갔다. 맹수처럼 버럭 하기도 했고 아이의 미소에 사르르 녹아 한없이 행복하기도 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만 같았다. 오르락내리락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들은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두렵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아이가 잠들면 비로소 나는 책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와 책 단 둘만 존재했다. 비록 한두 시간이지만 책을 통해 삶과 육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대체 언제부터 책 읽기에 흥미를 붙였을까. 아마도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괴도 뽀빠’와 ‘셜록 홈즈’를 읽던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우리 집은 방학 때 어디 여행이나 나들이 하러 갈 여유가 없었다. 긴 방학 동안 학원도 안 다녔던 나와 동생은 정말 할 게 없어서, 정말 지루하고 심심해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과 동네 책방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책벌레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다. 사실 친구들과 뛰어다니면서 놀고 TV를 보는 것에 비하면 독서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책에 흠뻑 빠지게 된 건 바로 ‘돈’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문예부를 담당하셨던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우연히 백일장 대회를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때 받은 상금은 30만 원.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큰 액수다. 상금을 받아 집으

로 걸어오던 그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인생을 통틀어 뿌듯하고 환희에 찼던 몇 안 되는 순간이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가슴이 벅차다 못해 뭔가 뜨겁게 충만했고 발걸음은 또 얼마나 가볍던지. 집에 날아오는 줄 알았다. 마침 페인트 먼지를 허영계 뒤집어쓴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고된 노동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부모님은 유달리 피곤해 보였다. 그런 부모님께 나는 상금을 고스란히 드렸다. 이내 엄마의 눈가는 촉촉해졌고 아빠는 입꼬리가 활짝 올라갔다. 그 순간만큼은 회색빛 집에 핑크빛이 감돌았다. 그 날로 나의 인생은 바뀌었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진정한 책벌레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각종 독서 관련 대회와 문예 대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했다. 바로 상금과 부상으로 따라오는 도서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처음에는 부속품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반해서 책을 읽고 글을 썼는데 점점 나는 책 본연의 매력에 퐁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적이 쑥쑥 올랐고 어느새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제법 잘하는 똑 부러진 여학생이 되어 있었다. 책이 나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참으로 불편했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난은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참 찜질하고 구리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질 수 없는 부족과 결핍으로 가슴이 텅 비었다. 무엇보다 초라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책

은 아주 훌륭한 도피처가 되어주었다.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모든 찌질함과 자질구레한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책 속에는 나와 같이 변변치 못한 부족함이 가득한 결핍투성이의 인생들이 수두룩했다. 도서관 한 모퉁이에서 때로는 킁킁대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주책바가지처럼 눈물을 흘리며 읽고 있다 보면 나의 사소한 불행쯤은 온 데 간 데가 없어지곤 했다.

돌아보면 삶의 마디마다 품었던 책이 무엇이었는데가 따라 내가 서 있는 곳의 좌표가 그려지곤 했다. 20대 불같은 연애 후 시련의 아픔을 위로해 준 것도 책이었고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를 하루하루 겨우 버텨나가던 취업준비생 시절에도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책이었다. 책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었고 답을 주었다. 생각해 보면 책이야말로 세상 가장 공평한 스펙이고 기회고 사다리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은 적은 누구나 책은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되어 읽는 책은 또 다르다. 예전엔 나름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야지 하는 야무진 생각으로 책을 읽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나를 지키고자 책을 읽는다. 행복과 성공이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야만적이고 미개한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긴장과 혼란함은 “산다는 게 다 그렇지”라며 당장의 눈앞에 놓인 것들만 겨우 수습하게 만들고 어지러운 속도로 살아가게 한다. 또 정신 못 차리면 스마트폰과 SNS의 타인의 삶을 보며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진다. 더 크

게, 더 화려하게, 더 빠르게 더 잘나가야만 한다는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나다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 그랬듯 답은 역시나 책이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행위야말로 엄마는 물론 내 아이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요즘 엄마의 삶은 사색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여유나 심심함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래서 악착같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책을 읽고 글을 쓰려고 한다. 혼자서 하기 힘들 땐 함께 모임 속에서 어우러져 책을 읽고 교감했다. 코로나 이후엔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나기도 했다. 책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자녀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엄마로 아내로 사는 삶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서로 더 뿌리가 견고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갈구한다. 엄마로 아내로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남들처럼 살라고 세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들처럼 살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다. 스스로 평범함을 자초하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그대로 묻어버린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못 산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난도질한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최고 버전의 나다움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부분 엄마는 아이를 낳은 다음엔 아이의 꿈과 교육에만 힘을 다 쏟는다. 때로는 집착하면서, 하

지만 정작 엄마는 꿈이 없으면서 아이에게만 특별한 꿈을 가지라는 것이야말로 참 모순적이 아닌가. 그러니 엄마들이야말로 자신만의 특별함을 찾도록 끊임없이 읽고 사색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나를 찾을 때까지.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그냥 그렇고 그런 아줌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스스로 의심이 들더라도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나다운 육아, 나다운 살림을 하고 먼 훗날 아이가 엄마 손을 떠날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최고 버전의 나다움’을 엄마의 속도로 천천히 이뤄나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내 편인 책과 함께.

|동생

플랜 비(plan B)는 B(book)에 있다.

허경주 대구 달서구 상인동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려면 동기도 있어야 하고 용기도 있어야 한다. 동기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떤 일을 같이 할 ‘사람’이다. 5년째 이어오는 독서모임 ‘아베체’. 처음 독서모임을 시작할 때의 느낌, 막막함과 설렘이 공존하던 그 기분을 기억한다. 문맹률은 낮는데 비해 독서량이 바닥을 치는 사회에서 독서토론을 하고, 게다가 독후감이라도 꾸준히 써 보자고 하면 사람들이 흔쾌히 모일까?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할 도반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단 생각이 말로 나오니 머릿속에만 있던 막연한 구상과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생각은 말이 되었고 말은 몸을 움직였으며 몸이 움직이면서 내는 파장은 발 없는 소문이 되어 알음알음 퍼져 나갔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이 작당하여 ‘

독서토론 모임'을 만든 지 며칠 만에 축이 빠른 사람의 합류로 우리는 셋이 되었다. 셋은 겁 없이 무언가를 시도해볼 만한 숫자이다. 그리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셋은 어느새 다섯으로 훌쩍 불어 있었다. 말마따나 장족의 발전이다. 어딘가 공연히 무뚝뚝해 보이고 사실 과묵하기도 하며,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폐쇄적으로 보이는 대구에서 우리는 그렇게 독서토론 모임을 시작했다. 겁 없는 중년의 무모한 도전이다.

평균 연령 50대 초반의 사람들. 나이에 걸맞게 사회적 체면치레를 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뭉쳤다. 우리는 왜 꾸역꾸역 모여서 머리 아프게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고민해가며 시난고난 책을 읽을까? 평생 교육원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울 만큼 차고 넘친다. 도서관마다 철철이 열리는 인문학 강좌는 입맛 따라 고를 수 있을 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의 질은 꽤 괜찮고 유익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교육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 교육비로도 빠듯한 고만고만한 살림살이에 취미생활조차 가뭇돈을 들일 수 없는 처지도 한 몫 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누릴 평생 교육의 장을 기성의 맞춤형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다는 오기 비슷한 의지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서(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

므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인생 이모작, 즉 플랜 비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플랜 비는 바로 책에 있었다.

성공한 인생은 없다. 마찬가지로 실패한 인생도 없다. 성공과 실패는 타인의 시선으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브랜드나 집의 평수나 자동차 배기량이나 연봉이나 자식들의 대학진학 같은 것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도 안 된다. 좋고 나쁨을 판단할 이유가 없으니 부러워하거나 안쓰러워 할 필요도 없다. 부러움은 열등감의 발로이고 안쓰러움은 우월감의 다른 표현이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자신의 인생에 나름의 노력을 했을 사람들.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르지 않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의 몇 안 되는 회원들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 배움이 부족하다 여겨 공연히 주눅 든 사람도 있고, 너무 긴 가방끈이 자신의 삶을 칭칭 옹아매는 족쇄가 되는 사람도 있다. 긴 가방끈은 종종 사회적 체면의 수위를 높여 직업선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수십 년간 무수히 많은 직업을 거치며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자신의 직업을 당당히 꺼내 놓기 난처해하는 사람도 있다. 젊어 한 때 섬광처럼 반짝인 리즈시절을 평생을 지탱할 자양분으로 삼아 버티는 이도 있다. 모두 아름다운 이들이다. 힘든 인생을 내색 없이 버티느라 보이지 않는 생채기로 만신창이가 된 이들이 책을 통해 뭉쳤다.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으며 또한 지성의 평준화를 누리고 있다. 독서모임을 꾸려나가며 '책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 책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책이 너무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

있고 책에서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려서 읽은 책 한 권의 재미와 감동이 평생 책을 가까이 할 동기가 되었으며 그 덕에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었다는 귀가 솔깃한 얘기도 나왔다. 책은 좋은 친구이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는 좋은 문학작품이 용기를 주었고 사회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두툽한 사상서가 도움이 되었다.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손가락으로 책 제목을 훑어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뽑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뽑아 올린 책이 의외의 월척이 되어 그 작가의 책을 모조리 찾아 읽는 마중물 역할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혼자 읽기의 한계는 분명했다. 내 취향에 맞는 책만 고르거나 읽기 힘든 책은 덮어두기 일쑤이다. 책의 내용을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내 입맛에 맞게 변주해버리기도 한다. 제대로 한 번 본 때 나게 책을 읽어보자는 생각, 이 좋은 책을 여럿이 함께 읽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전문가의 식견과 참견이 없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 이런 생각들이 모여 독서 모임 ‘아베체’를 만들게 되었다.

아베체(ABC: All Books & Culture)를 시작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다섯 명으로 처음 토론을 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회원은 두 갑 절로 늘어 어느새 열 명이다. 한 명 한 명이 모임에 들어온 사연은 독특하다. 딱히 토론 공간이 없어 세미나실이 있는 카페를 전전할 때 카페에서 차 마시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들어오기도 했다. 토론을 하러 들렀던 외곽 조용한 카페 주인이 ‘나도 같이 책 읽고 싶어요’

라고 털썩 회원 가입을 하였다. 우리 사회에 책 읽는 인구가 적은 것은 책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함께 읽을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5년 간 참으로 많은 책을 읽었다. 차곡차곡 쌓아두면 몇 미터는 너끈히 되리라. 레미제라블, 로마제국쇠망사, 혼불, 열린사회와 그 적들, 통찰의 시대, 축의 시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열하일기, 플라톤 대화편 등 과학, 역사, 철학, 문학을 망라하는 주옥같은 수많은 책들이 머릿속에 저마다의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 아, ‘아베체’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혁명조직이름인 ‘아베세’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독일식 이름이다. 알파벳 ABC에 ‘All Books & Culture’라는 의미를 덧입히며 다들 뿌듯했다. 말 그대로 모든 책과 문화를 섭렵하자는 호기로운 자신감도 생겼다. 재미있는 책, 유익한 책, 어려운 책, 두껍지만 쉬운 책과 얇지만 머리 쥐나는 책들. 책은 모두 저마다의 색깔과 성깔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 수많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소화시키며 우리는 책읽기가 주는 한갓진 재미를 만끽한다. 사람 사는 일이 세속의 소용돌이에 늘 휘둘리기 십상이지만 그나마 책이라는 동아줄을 생명줄인양 비끄러매고 세파에서 약간은 비껴나고자 안간힘을 써보곤 한다. 그 안간힘이 무용함으로 그치면 어쩔까. 그 고민과 노력이 아름다운 것을. 책읽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재미를 준다. 읽기 힘에 부칠 때는 잠시 덮어두어도 괜찮다. 책이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읽어서 더욱 즐겁다.

사족 : 나는 가끔씩 좋은 모임은 인절미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아베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독서모임 이름을 ‘인절미’로 하자고 했다가 만장일치로 퇴짜 맞았다. 둘둘 굴리면 고물이 척척 달라붙는 인절미. 굳이 애써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력과 찰기로 몸집을 불러나가는 인절미. 근데 알고 보니 인절미로 안하길 잘했다. 이미 ‘보리떡’이라는 이름의 전국구 독서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 2019년 한 해 동안 아베체에서 읽었던 책 사진과 함께 회원들의 감상평을 담은 포토북

2019년 고전읽기 독서 목록		2019년 아베체 독서 목록	
01.1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	박종규	01.31 문학평론가 김성호	김성호
01.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	박종규	02.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2.1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	박종규	03.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2.1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	박종규	04.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3.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	박종규	05.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3.1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	박종규	06.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3.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	박종규	07.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3.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	박종규	08.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0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	박종규	09.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0	박종규	10.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0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1	박종규	11.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1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2	박종규	12.28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1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3	박종규	01.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1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4	박종규	02.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1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5	박종규	03.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2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6	박종규	04.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7	박종규	05.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4.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8	박종규	06.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0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9	박종규	07.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0	박종규	08.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0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1	박종규	09.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1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2	박종규	10.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1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3	박종규	11.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1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4	박종규	12.29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1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5	박종규	01.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2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6	박종규	02.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7	박종규	03.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5.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8	박종규	04.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0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29	박종규	05.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0	박종규	06.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0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1	박종규	07.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1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2	박종규	08.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1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3	박종규	09.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1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4	박종규	10.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1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5	박종규	11.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2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6	박종규	12.30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7	박종규	01.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6.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8	박종규	02.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0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39	박종규	03.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0	박종규	04.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0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1	박종규	05.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1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2	박종규	06.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1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3	박종규	07.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1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4	박종규	08.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1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5	박종규	09.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2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6	박종규	10.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7	박종규	11.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8	박종규	12.31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7.3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49	박종규	01.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0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0	박종규	02.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0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1	박종규	03.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0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2	박종규	04.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1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3	박종규	05.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1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4	박종규	06.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1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5	박종규	07.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2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6	박종규	08.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2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7	박종규	09.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2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8	박종규	10.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3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59	박종규	11.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3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0	박종규	12.32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3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1	박종규	01.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8.3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2	박종규	02.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0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3	박종규	03.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4	박종규	04.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0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5	박종규	05.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1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6	박종규	06.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1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7	박종규	07.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1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8	박종규	08.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1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69	박종규	09.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2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0	박종규	10.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1	박종규	11.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09.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2	박종규	12.33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0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3	박종규	01.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0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4	박종규	02.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0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5	박종규	03.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1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6	박종규	04.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1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7	박종규	05.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1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8	박종규	06.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1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79	박종규	07.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2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0	박종규	08.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2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1	박종규	09.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2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2	박종규	10.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0.3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3	박종규	11.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0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4	박종규	12.34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0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5	박종규	01.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0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6	박종규	02.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1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7	박종규	03.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1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8	박종규	04.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1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89	박종규	05.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2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0	박종규	06.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24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1	박종규	07.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27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2	박종규	08.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1.30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3	박종규	09.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03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4	박종규	10.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06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5	박종규	11.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09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6	박종규	12.35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12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7	박종규	01.36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15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8	박종규	02.36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18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99	박종규	03.36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12.21 데이비드 코스트의 자기종교 100	박종규	04.36 김성호의 문학평론	김성호

◀ 2019년 한 해 동안 읽은 아베체 독서목록과 고전읽기 독서목록

|가작

세 번째 소설

강인숙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홍길동전, 그게 소설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뒤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아버지는 평생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앓이를 했다. 젊은 시절부터 받아보던 신문은 아버지의 유일한 학습교재였다. 예전에는 신문에 한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한자를 일일이 따라 써보면서 공부했고,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 보던 영어 참고서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그 책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다. 따로 연습장이라는 것도 없이 신문 여백에다 알파벳과 한자를 쓰면서 외웠다.

“검정고시라도 보시는 게 어때요?”

자식들이 이렇게 권유했을 때 아버지는 그런 것도 있느냐며 당장이라도 시험공부에 전념할 것처럼 들떠 하셨지만 이른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을 낼 수가 없

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셨다.

“나이가 드니까 책을 봐도 판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영어단어를 외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한자를 따라 써보면서도 ‘이렇게 가뭄이 심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던 아버지가 소설에 관심을 보인 것은 동생이 지방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신인문학상에 당선된 뒤였다. 동생은 오래전부터 소설가가 되기 위해 습작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거 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나?”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하지, 원. 찌쭈!”

아버지 눈에 동생의 습작은 밥벌이조차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낸 동생에게 드디어 당선 소식의 날아들었고 아버지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졌다.

“상을 받았다고? 소설로?”

아버지는 동생에게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소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말이 없으신 듯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떠올린 것이 홍길동전이었다.

“그래, 소설이라면 말이다. 홍길동전, 그게 소설 아이가?”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마저도 집안 형편

이 안 좋아서 결석하는 날이 출석일보다 많았다고 하셨다.

“매일 학교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제. 어린 나이에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 그런 형편이다 보니 입학은 했지만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웠다. 그래도 한글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한글 공부할 책을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5일 장에 다녀오시면서 홍길동전을 사가지고 오셨더라. 홍길동전, 그게 소설이제?”

아버지는 70년 전에 읽었던 홍길동전을 떠올리며 그제야 동생이 써서 상을 받았다는 소설이 뭔지 알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다. 글을 쓰는 것은 ‘돈 안 되는 일’이고, 책을 읽는 것 역시 돈 버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던 아버지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노동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아버지에게 모든 일은 돈 되는 일과 돈 안 되는 일도 나뉘었다. 그러던 아버지의 생각이 바뀐 것은 동생의 소설을 읽고 난 다음이었다.

“세 번이나 읽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도 두 번째는 좀 알겠고, 세 번째는 재밌더라.”

그리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다. 글을 읽는 동안에는 일을 못해서 시간만 버리고 돈도 못 벌었는데도 어찌 돈을 번 것처럼 든든한 기분이 들었노라고. 돈 안 되는 일에 왜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인지 조금은 알겠노라고 하셨다.

그 후 명절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덕담을 해 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몸을 잘 챙길 것과 부지런하게 일할 것을 당부했고 손자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책도 많이 읽어라. 홍길동전을 읽은 게 7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걸 보면 책이라는 게 참 힘이 센 것 같다.”

70년 전의 일이라면 까마득해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유독 홍길동전을 읽었던 건 기억이 난다고 하셨다.

“소설, 그거 읽어보니까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싶기도 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덕담 때문인지 어쨌는지 그날은 다른 명절날과 분위기가 달랐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이들은 책을 펼쳐보았고, 어른들은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들여다보았다. 활자를 읽는다는 것이 이토록 낯선 풍경이었나. 낯선 풍경이었지만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이 모습이 우리 집 명절날의 풍경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괜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아버지의 소설 읽기는 홍길동전, 동생의 소설, 여기서 멈췄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아직 세 번째 소설을 만나지 못하셨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농사일을 하다 보면 독서를 할 여력이 없는 게 당연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대가 된다. 아버지가 읽게 될 세 번째 소설이 무엇일지.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점으로 달려갈 것이다.

“읽을 만한 소설책 한 권 보내줄 수 있겠나?”

책은 나에게

강효정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지금도 책장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다.

옛날 책이 귀하던 시절 책을 비닐로 싸서 곱게 보았던 흔적이 남아 있고, 누렇게 종이가 변했으며, 책의 가격도 단돈 800원이다.

이 책을 내가 처음 만난 건 어린 시절 아빠의 책장에 꽂혀있는 다양한 책들 사이에서였다.

‘꽃들에게 희망을’ 제목과 그림만 보고는 어린이 책인 줄 알고 책장에서 뽑아 첫 장을 폈다.

아빠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책이었나보다. ‘조그만 선물에 네가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내년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너와 내가 험난한 세상을 서로 의지하며 가길 바란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말이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어렸을 적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읽으며 내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뒤로 이 책은 내 차지가 되었다. 방을 바꿀 때도, 책상을 바꿀 때도, 이사 갈 때도 그리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시집을 갈 때도 짐 꾸러미에 이 책은 함께 했다.

학창시절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하여 고민할 때 노랑애벌레를 보며 나도 나의 ‘참모습’을 찾기를 소망했고 나비가 되는 희망을 꿈꾸었다. 청년 시절에는 사랑이란 무엇일까를 질문하며 ‘참된 사랑’을 이 책에서 찾았다. 최근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 전 아이와 차를 타고 가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니 듣고 있던 7살 아이가 처음에 훌쩍이다가 마지막엔 엉엉 울어버렸다. 뭐가 그렇게 슬펐냐고 물어보니 그냥 듣는데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오래전 읽었던 책이라 아이에게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맞나 싶어 집 앞의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 함께 보았다. 어렸을 적 기억이지만 이 책 또한 내 삶에 인상 깊었었기에 내용을 거의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신랑도 “오~기억력 대단한데.” 하고 말하니 괜히 쑥스러우면서도 좋았다.

그리고는“잠깐 기다려봐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 그거 읽어줄게.” 하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찾았다.

한참 만에 다시 집어든 이 책이 참 반가웠다. 그런데 아이에게 읽어주려고 보니 이 책에 글이 이렇게 많았나, 내용이 이렇게 어려웠

나 싶었다.

아이도 내가 어렸을 때처럼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왜 그런데?”라는 질문 공세가 쏟아지지만 언젠간 아이도 자라면서 한 번씩 삶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꺼내 볼 책이 되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이끌어 줄 책 한 권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바라본다.

나는 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한다. 대학생 시절 나는 도서관을 자주 찾았다. 2층 일반열람실의 구석에 세로로 길게 난 창가에 놓여진 1인용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었다. 책을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이미 전산화된 도서관에서 쓸모가 없어진 책 뒤에 붙은 종이 도서대출카드에 내 이름을 적어 놓는 재미가 있었다. 지금은 도서관에 가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집에서, 이동하면서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종이도서대출카드, 비닐이나 신문으로 곱게 싸서 책을 읽었던 시절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책을 대하는 방법과 방식은 변화하였지만 책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그래서 난 오늘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쪽지를 써서 마음을 담아 책을 선물한다. 책이 나와 그리고 당신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 내일을 꿈꿀 희망, 누군가와 의 인연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이다.

|가작

마음을 잇는 시간

김경진 서울 노원구 월계동

몸속을 깨끗이 정화하는 시간. 멍 자국 가득한 엄마의 팔에 굵은 주사바늘이 꽃힌다. 혹여 가느다란 혈관이 예민하게 굴까 온 신경이 곤두서는 순간이다. 이윽고 엄마의 몸에서 빠져 나온 탁한 피가 투석기로 향하고, 곧 노폐물을 제거해 깨끗해진 피가 주사바늘을 통해 다시 몸속으로 돌아온다. 나지막이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온다. 지루하고 숨 막히는 과정은 네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반복해 이루어진다. 충분히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이 일만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엄마는 투석을 받을 때면 애써 잠을 청한다. 침대에 돌아누운 엄마의 몸에서 생기라곤 한 점 찾아볼 수 없다. 스스로 치유하고 순환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엄마의 고목처럼 말라버린 몸은 마치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솟덩이 같았다.

엄마가 안정되고 나면 나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책을 꺼낸다. 마음을 정화할 시간이다. 늘 만원인 투석실의 소음과 특유의 피 비

린내, 묘한 불안감을 한권의 책으로 뇌리에서 깨끗이 지워낸다. 투석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네 시간여 동안 의식적으로 온 신경을 책 속 글자에만 집중시킨다.

모든 걸 내려놓다시피 하고 시골로 내려왔다. 대수술을 거치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신장투석을 시작한 엄마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는 몇 달씩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동생은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남편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때였다. 귀향을 반대하던 남편을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며 어쩔사리 설득했다.

엄마를 간병하는 일은 예상 외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했다. 일주일에 세 번 투석실에 가야 했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식단을 별도로 챙겨야 했다.

투석을 받는 날이면 오전 5시에 일어나 일단의 준비를 마치고 6시 반까지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엄마를 데리고 갔다. 이른 아침부터 투석실은 푸석푸석하고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진 만성심부전환자들로 북적였다. 열 살도 되지 않은 꼬마 아이부터 칠십 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투석환자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들에게선 모두 똑같은 냄새가 났다.

하루는 잠이 오지 않는지 우두커니 투석기를 바라보던 엄마가 내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다정한 딸은 아니었지만, 엄마에게도 마음에 평안을 안겨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읽어내려 갔다. 언젠

가 한번 읽어보라며 남편이 건네주었던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었다.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여진 언어의 정원 속에서 무심한 나의 표정도, 예민하고 날카롭던 엄마의 눈빛도 한결 순해진다. 어느새 삶의 고단함이 실린 엄마의 코고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온다.

“결국 잘 거면서 책은 왜 읽어 달래!”

입을 뻐죽 내밀었지만,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든 엄마를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사각사각 책 넘기는 소리며, 또랑또랑 글자 읽는 소리가 엄마에게는 휴식을 주었나보다. 누군가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마음에 풍요를 가져다주는지 나는 잘 안다.

어린 시절 나는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잠에 빠져들곤 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소꿉놀이를 하는 것보다 엄마 곁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인가 엄마는 내가 한바탕 울거나 뺨쳐있을 때면 항상 무릎 위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었다. 불혹이 된 지금까지도 내가 책을 즐겨 읽는 것은 아마 어린 시절 엄마의 영향 때문이리라.

그날 일을 계기로 나는 투석을 할 때마다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엄마는 책 특유의 쿼퀴한 냄새가 투석실에서 새어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를 씻어내 주는 것 같다며 좋아했다. 한참 책을 읽어주면 엄마는 가만 눈을 감고 조용히 잠에 취해들곤 했다. 고통과 절망의 냄새가 스물스물 피어나는 투석실 한가운데에서 근심 하나 없는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단잠에 빠져들다니. 그 순간만큼은 대수술을 거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약자도, 투석환자도 아니었다. 마치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다 곤히 잠에 빠진 7살 어린 소녀와 같았다.

투석실 주변에서는 엄마를 향해 “이렇게 자상하게 책을 읽어주는 딸이 어디 있느냐”고 칭찬을 했다. 정작 내가 책을 읽어준 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잔뜩 긴장한 엄마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였다. 옆에서도 지켜보기 힘든 과정을 온 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엄마는 오죽 힘들었을까.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후로, 책을 고르는 일은 내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시내에 있는 서점을 찾아 엄마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엄마에게 희망을 줄 만한 책을 골라왔다.

책 읽어주는 집에서도 계속됐다. 오랜 세월 투석이 이어지면서 웃음과 생기가 사라진 엄마의 몸엔 불면증과 함께 가려움증이 찾아왔다. 엄마는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깨 TV를 켜다. 몸이 가려워서, 속이 메스꺼워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몇 번은 투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에 엄마만 예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다 결국 미안해진 나는 방에서 책을 가져와 엄마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책에는 책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를테면 생기를 잃어버린 엄마와 무뎌진 딸을 하

나로 이어주는 힘 말이다.

한 권, 두 권. 엄마에게 읽어준 책이 책장을 가득 채워가던 어느 봄날, 엄마는 갑작스레 눈을 감았다. 힘없이 떨군 엄마의 팔에는 내가 엄마에게 읽어준 책만큼 많은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오늘처럼 엄마가 생각나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책을 찾는다. 책 속에서 옛 추억과 그리움의 냄새를 맡고, 멀리 떠나 버린 엄마의 체온을 느낀다. 혹시 꿈에서라도 엄마를 만난다면 다시 한 번 책 한 권을 조곤조곤 읽어드리고 싶다.

나의 슬기로운 독서사(史)

김정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내 책을 가졌다. 내 생애 교과서 빼고 처음 읽은 것도 그 책이었다. 공교롭지만 학교에서 강매한 책이었다. 이제 책 제목은 까마득히 잊었다. 선생님이 내민 종이에는 제목과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싼 책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도 나는 가격 걱정만 했다. 심장이 마구 벌렁거렸다. 쌀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동화책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책값을 마련하면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다행히 그 책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내 이름을 딱하니 적어도 되는 온전한 나의 소유물도 처음인지라 주구장창 들고 다녔다. 우리나라 전설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소북 입은 처녀귀신도 나오고, 원수 갚는 도령 얘기도 나오고, 효심 깊은 효녀 얘기도 나오는, 웬일인지 가

슴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내용이 많은 책이었다. 요즘에야 교과서 빼고 첫 책을 4학년이 되어서야 읽었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만한 사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절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아무도 책을 읽지 않았다. 학교 다녀와서 책가방을 휩 던져놓고 골목에 모여 공기 따먹기나 팽이를 돌리며 놀았다. 시간이 넘쳐나는 주말에는 끼니도 거르며 강가 모래사장에 몰려가서 노느라 바빴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책 읽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동네에서 다섯 정거장쯤 떨어진 시립도서관은 입장료로 10원을 내야 했지만, 책 읽는 고귀한 행위에 따르는 마땅한 절차처럼 느껴져서 그 일을 해내는 나 자신에 우쭐한 마음마저 생겼다. 점점 읽은 책이 늘어갔다. 그러나 읽어야 할 책들도 끝없이 줄을 서서 어서 읽어주기를 기다렸으므로 나는 놀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은 문밖에서 몇 번쯤 나를 부르다가 지쳤는지 더 이상 찾지 않았다. 한 번쯤 나가서 ‘너희와 노는 일보다 책이 훨씬 재미있다’고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다. 책 읽는 일만으로도 내가 가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

우리 가족이 인구 20만의 지방도시에서 시골로 이사한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였다. 원래도 가난했는데 자꾸 더 가난해져서 역시나 가난한 할머니 집으로 합가하여 들어간 것이다. 시골 아이들의 텃새는 힘들고 부당한 거였다. 힘없고 돈 없는 떠돌이 사람들을 쉽게 반겨주지 않았다. 사춘기와 맞물린 시기에 겪는 그 서러운 심정을 책을 더 가까이하며 풀어냈다. 책 많이 읽는, 하얀 이마를 가

진 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는 독후감 대회에서도 동시쓰기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었고 군 대회에는 늘 대표로 뽑혀 나갔다. 동시를 쓰는 국어 시간에는 내 것을 다 쓰고 나서도 주위에 앉은 아이들 몇 명 것도 금방 대신 써줬다. 덕분에 내 의지와 별개로 문학소녀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자주 붉은 자두나 햇복숭아를 내 손에 쥐여 주었다.

찌들게 가난한 살림에 중학교는 겨우 마쳤다. 고입 원서를 쓰는 그즈음 어느 날 해거름 녀에 엄마와 나는 가마솔 걸린 아궁이 앞 맨 바닥에 앉아 부지깽이로 애꿎은 흙바닥을 딱딱 때리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도저히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다고, 네 동생 중학교는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형편에 어떻게 두 사람 공납금을 내겠냐고 엄마는 목 안으로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며 어려운 말을 뱉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창피하다고, 어떻게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가 되겠냐고 울었다. 나중에는 원서라도 쓰고 고입시험이라도 치게 해달라고 말하다가 또 껍떡거렸다. 결국 시험을 치고 합격증을 받고 졸업식을 한 뒤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었다. 그때까지도 아무에게도 고등학교 못 간다는 말은 안 했다. 결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어린 내 자존심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철저히 나 자신을 고립시켰다. 하얀 이마는 더 하얗게 질렸다. 유난히 빛나던 갈색 눈빛은 힘을 잃고 자주 흔들렸다. 스스로를 유폐시킨 그 방에서 나는 책 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 책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다. 도망친 그곳은 슬펐으나 참으로 깊고도 풍요로운 세계였다.

3월이 다 갈 무렵에 나는 산업체 여고가 있는 방직회사에 입사했다. 입학은 당연히 못 했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1년을 살았다. 근무를 마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빈방에서 홀로 책을 읽었다. 책은 나를 구원하였다. 견뎌내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던, 내 삶에서 구멍과도 같던 시간 안에 허하거나 슬픈 것들 대신 희망이나 기쁨 같은 것을 콕콕 채워주었다. 그때 채워진 것들은 내 삶에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다.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여 사는 법도, 꿈을 꾸며 사는 법도, 삶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이겨내는 법도 그 채워진 것들이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내 나이 53세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어려운 시절에 책은 내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고, 막막하고 아린 아픔을 치유해주는 수단이었다. 책을 읽고 있을 때에 내가 빛났고 충만했으며 두려움들이 사라졌다. 책읽기는 마치 빛을 흡수하는 것과 같아서 내 안에서 채워진 빛들이 어느새 다시 빛으로 새어나왔다. 그 빛은 나를 감싸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위도 은은히 비춰주고 있어서 나는 제법 따스한 삶을 살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늘 책을 읽어주었다. 도서관이 가까운 동네로 이사했다. 함께 도서관에 다녔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클럽에 가입시켰다. 학교 도서관에서 학부모 도우미 사서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책 쓰기 동아리를 만들어 재능 기부도 했다. 그 결과로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저자 책 쓰

기' 캠프에 우리 지역 대표로 다녀오기도 했다. 또 방학 중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캠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부스 운영도 하며 동네 아이들이 책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다. 만나면 행복한 몇몇 엄마들과 독서모임도 만들어 함께 같은 책을 읽었다. 누구나 재밌고 유익한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읽고 얘기 나누고 싶은 간절한 욕구에 시달리는데, 동아리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만나니 말끔히 해소 되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다.

코로나 19로 전에 없던 일상을 살고 있는 중이다. 동아리 멤버들을 못 본지 6개월이 넘었고 동네 도서관도 문을 닫았다.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생들은 격주로 등교 중이니 언감생심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도 얼씬 못한다. 학교 도서관 출입은 당연히 금지다. 노인정에도 갈 수 없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식구들은 갈 곳을 잃고 집에만 묶여 있으려니 저마다 껴안고 사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한다. 동아리 멤버들과 다니던 산행은 마스크를 끼고 혼자 다닌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들여놓은 몇 종류의 화초들은 햇빛 부족으로 키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니 독서는 더 절실했다.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재밌게 읽었던 것들을 다시 읽었다. 몇 장만 읽고 도무지 넘기지 못하고 덮었던 책들을 인내를 가지고 읽었더니 아주 새로웠다. 몇 권은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읽는 중이다. 벗들과 동생에게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보내주었다.

가끔, 나는 왜 책을 읽고 있나 생각할 때가 있다. 책을 읽어서 뭐 그리 훌륭한 사람도 못 됐는데,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은 나를 생각하는 일은 끔찍하다. 날마다 멋진 옷과 가방을 살 수 있다 한들, 날마다 산해진미를 먹을 수 있다 한들, 날마다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다 한들 독서보다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행복한 충전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토록 저비용 고효율의 가성비 높은 삶의 기술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독서는 삶에서 당연한 선택이어야 함을 안다. 그렇고말고!

|가작|

나의 어머니

김지현 대구 달서구 이곡동

나의 어머니

사실 그녀와 난.

닮아 있지도 심지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계모, 새엄마.

그게 그녀의 이름이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난 건 9살 때

90년대 초기에 유행했다던 제비를 만나 바람이 난 생모가 나를 떠나버린 그 시점이었다. 예정에 없던 이별의 맛이었을까

나는 9살 초여름, 열병을 앓아버렸다.

며칠을 열과 싸움하며 아팠고 이 약, 저 약 먹어보아도 소용이 없었고 태어나서 처음 마른 인형 세트까지 선물 받았지만, 나의 열병

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열병을 앓기를 며칠,

약의 기운에 몽롱해져 있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았을 땐 처음 보는 웬 젊은 여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그것이 그녀와 나의 첫 만남이자 첫 인연.

그 후로도 며칠을 집에 찾아와 죽을 직접 쭈어 먹이고 약을 먹이고 내 잠자리를 돌보아주고 갔다. 그래서였던 걸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던 열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몽사몽 보았던 그녀도 홀연히 사라졌다.

누구였는지, 왜 왔었던건지, 엄마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궁금한것이 많았지만 그 시절 아빠들이 그러했듯 나 또한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질문을 삼키고 천진난만한 9살로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짐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다시 왔다. 아마도 함께 살게 될 거란 말과 함께.

그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의 경리아가씨 친하고 존경하던 회사 상사의 부탁이었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어린 나이에 느낀 작은 사랑이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 꽃다운 아가씨가 애 딸린 아저씨와 함께 산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건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어릴 때 엄마와 이별을 겪은 나로선.

상냥했던 그 아가씨는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며 살
뜰히 보살펴주었다. 하지만 그녀와 잘 지낸다는 건 엄마에게 배신이
고 미안한 일이었다.

‘엄마’라고 부르라던 아버지의 욕박에도 저지요… 라고 부르길 수
해,

어느덧 나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고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긴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유독 길었던 그 방학이 나와 그녀를 오랜 시
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던 그녀
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으로 나섰고 어떤 일인지 나도 따라
나서 보았다. 아니, 그 긴긴 방학동안 무엇이랄도 할 수 있으면 뭐
든 좋았다.

아무 말도 없이 쫄래쫄래 따라나서서 가본 첫 도서관은 참 조용
하지만 생기있고, 느려 보이지만 여유 있는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었다.

그런 나를 보기라도 한 건지 그녀는 문득 책 한 권을 찾아 건내준
다.

그건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

쉽게 읽히고 꽤 재미있을거란 말에 난생처음으로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을 들여다보게 된다. 지루한 일상의 연속 때문이었을까 아니
면 책의 재미 때문이었을까.

잠도 안자고 하루 만에 정독해 버리곤 내가 먼저 그녀에게 책을
빌리러 가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 나는 긴 겨울방학 동안 도서관 내
이름의 대여증을 만들고 많은 책들을 대여해와서 읽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

그녀와 난 책 내용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추천받고 함께 도
서관을 다니며 그제서야 가족 같은 그림으로 정을 나누고 있었다.

공부라면 지독히 싫어하고 활자라고 적힌 건 읽기 시작하면 졸턴
내가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심지어 국어 교과서 지문들까지 재미있
어지기 시작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더니 비록 실업계였지만 고등
학교 땀 3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내신으로 대학까지 가게 되는 꽤거
까지 이루었다.

불안해하는 나를 붙잡고 싶었을까? 꼭꼭 닫힌 방문처럼 닫혀버린
내 마음을 열고 싶었을까?

나의 어린 시절을 나의 사춘기를 그리고 나의 철없는 방황을 그녀
는 묵묵히 지켜보고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할 속앓이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모른다.

이제 결혼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후반이 된 내가, 20대 중
반의 그녀에게 묻고 싶다.

그 꽃다운 나이에 어떤 다짐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주었는지...

하지만 나는 수많은 물음들을 평생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열병 같은 존재이므로...

새 엄마.

나의 엄마.

단 하나뿐인 나의 어머니.

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작|

아버지의 서재

김지형 대전 중구 태평동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책을 읽으신다. 가는 귀 먹은 아버지가 방안에 들어서면 나의 인기척도 알아채지 못하고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는 목격하곤 했다. 책상에 책을 펼치시고 도수 높은 안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글자에는 확대경을 대어가며 잔뜩 고개를 숙인 모습은 구부정한 등을 더 휘어 보이게 했다.

그 방은 원래 내 방이었다. 세 칸의 방은 부모님이 한 칸, 또 한 칸은 오빠가 독차지였고 나머지 한 칸에서 네 자매가 복닥거리며 지냈다. 오빠와 언니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 후에야 나와 여동생은 방 한 칸씩을 나누어 가졌다. 그 때가 내 나이 스무 살 무렵이었다. 세련되고 늘씬한 동생은 방안을 옷으로 채웠고 나는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책으로 둘러싸인 방을 갖는 것은 나의 로망이었다. 미녀가 야수의 서재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의 감격을 나도 한 번 맛보고 싶었다. 그렇게 넓은 방에 천장 높이까지 쌓아올린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를

가진 야수라면 나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용돈을 받으면 서점으로 갔고 돈을 벌게 되자 마음껏 책을 샀다. 빌려서 읽는 책들은 타인의 삶에 대한 그저 잠깐의 엿보기 같아서 책을 사서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나 좋은 글귀에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나서야 비로소 책을 읽었다는 성취감과 내 책이 되었다는 충만감이 들었다. 읽은 책들과 읽어야 할 책들과 그 사이사이에 켜켜이 쌓인 먼지로 방안은 가득했다.

가끔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오셔서 책을 읽곤 한다는 것을 나는 눈치 챘지만 모르는 척 했다. 아버지는 엄마처럼 포근한 대상이 아니었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이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말쑥이 없으셨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영상은 식사할 때의 모습이었다. 숟가락과 젓가락들이 오가는 소리,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물 후루룩 넘어가는 소리와 음식물 찹찹 거리는 소리. 온갖 소리들로 가득한 식사시간을 정적만 감돌았다고 회상하는 이유는 대화의 단절 때문이었다. 누군가 입을 열려고 하면 밥 먹을 때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는 따끔하게 못을 박았다. 그런 아버지라 나는 평생을 통해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남매 중 내가 아버지와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얼굴 생김새도 아버지 판박이였고, 꽃을 가꾸거나 산을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아버지와 비슷했고 누구보다 책을 좋아했다. 건축가였던 아버지는 방안 가득 설계도면을 늘어

놓고 여백에 무언가를 적으시며 늘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시거나 한자로만 된 책을 보실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내 능력 밖의 영역에 몰두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서도 더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른이 되더라도 결코 그런 책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나도 나이가 들면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욕구는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어서 내가 한자어에 흥미를 가지고 일본어를 독학했던 데에도 단연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에게는 서재가 따로 없어서 우리 집 밥상은 밥 먹을 때보다 아버지가 책을 보시느라 펼쳐놓을 때가 더 많았다. 하나 뿐인 텔레비전을 보느라 우리들이 안방에 모여 앉아 저녁 시간 내내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한 구석에서 책을 펼치곤 하셨다. 내가 나만의 방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자신만의 서재를 꿈꾸며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휴일에는 도서관으로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서점에서보다 도서관에서는 새 책을 펼쳐보는 게 더 자유로웠다. 특히 내가 읽었던 책이 푹 튀어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면 나는 연인을 만난 것처럼 설렘다. 운동장에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다 같은 체육복으로 서 있어도 유독 내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읽었던 책은 재미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좋았든지 기억에 별로 남지 않았는지 다시 보았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

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기한 내에 읽어야 한다는 가벼운 부담과 함께 짧은 기간 공유한다는 안타까움에 더 절실해진다고나 할까. 나는 주어진 기간 동안 책과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책을 빌리는 아버지를 도서관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으로 기억한다. 나는 아버지와 마주칠까봐 멧쩍어서 숨어버렸지만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워낙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내가 같은 책을 읽는다는 사실은 부녀라는 관계 이상으로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항상 나와 4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어른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그 나이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멀리 벌어진 숫자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서로 다른 세대의 아버지와 동시대를 살면서 어찌면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서른넷이 되어서야 나는 명품가구는 아닐지언정 그동안 모아둔 2,000여권의 책을 새로이 장만한 책장에 꽂으며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변변한 세간도 없으면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한 그림책들로 책장은 빈틈이 없어졌고 더 이상 갈 곳 없어진 내 책들은 차츰 차츰 박스 속에 가두어졌다. 주택이며 빌라를 전전하던 셋방살이는 가지가지 이유로 1, 2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니게 했고 책은 더할 수 없이 거추장스러워져 갔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창고에 두었던 박스를 다음 번 이사 때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꾸러미, 꾸러미 들고 다니던 책들은 비루한 신세가 되어 도저히 더 이상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

손때가 묻은 책들을 차마 버리지도, 기증하지도 못하고 나는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맡아달라고 친절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박스 안에 오래 두면 책들이 숨을 못 쉰다며 내가 쓰던 방에 쌓아둔 짐을 정리하고 책들을 차곡차곡 진열해 나가셨다. 방은 다시 원래대로 형태를 잡아갔고 주인만 아버지로 바뀌었다.

친정에 가면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러 내가 사랑했던 책들을 훑어본다. 눈부신 햇살이 방안 가득해지면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눈송이처럼 폴폴 날리고 나는 책들 사이에 쌓인 먼지들을 닦고 오곤 한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나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가 아직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책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기나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젊을 때의 책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게 했고 죽음이라는 결승점을 앞에 둔 지금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어느 순간 닥쳐올지 모를 두려운 순간을 대비하는 것일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 수 없지만 책이 아버지와 나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는 어느새 아버지의 영혼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간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책은 고기 맛

박선영 광주 북구 운암동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다.

책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자,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 -찰스 W. 엘리엇-

‘책’하면 떠오르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따뜻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책을 좋아했던 내게 책벌레라는 별명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딸 부잣집이었던 우리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기억 속 그날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모님도 언니도 동생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날이었습니다.

거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부서질 듯 눈부신 햇살과, 커튼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바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도 행복

해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이 똑똑히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제제의 소중한 친구 뽀루뚜까가 밍기뉴 기차에 치였을 때 나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울었고 그 어린 나이에 가슴 먹먹한 아픔에 대해 느꼈습니다. 얼마나 책에 몰입했는지 부모님이 들어오신 것도 모를 정도로 말이지요.

이렇게 책을 좋아했던 나는 언제 어디서 건 책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책벌레 꼬맹이는 책을 사랑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지에서도 책은 늘 제 곁에 있었고, 힘들고 우울할 때 그 어떤 치료제보다 효과 좋은 약은 한 권의 따뜻한 에세이였습니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 근무했을 때도 학교에서 마음껏 빌려보았던 한국 책들이 없었다면 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나에겐 어쩌면 뉴욕보다도 멀게만 느껴지던 곳이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여행이 더 익숙한 나에게 부산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근무하는 남편 덕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타지의 사람들에게 서울하면 강남이, 부산하면 해운대처럼 랜드마크가 먼저 연상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시장 등 몇몇 관광 명소만

들었던 나는 연애 1년 기간 동안 부산을 구석구석 훑었습니다. 평소 책 없이 못 사는 나의 책 사랑을 알고, 남편은 ‘태종대 등대 도서관’ 등 부산의 유명한 도서관을 소개했고, 우리는 가끔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1년의 달콤한 연애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직장을 옮기기 쉬운 내가 남편을 따라 부산에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결심에 부모님과 언니 동생들은 모두 걱정을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부산에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한 명 없는데, 생판 모르는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정말 괜찮겠니? 그야말로 망망대해 같은 낯선 곳에 툭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엄마, 아무진 둘째 딸, 비행기로 6시간 떨어진 싱가포르에서도 혼자서 쫓쫓이 3년을 살았는데! 외국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엄마 사위가 둘째 딸한테 하는 거 안 봤어? 오빠 믿고 잘 살아 볼게요.”

“그래도... 언니나 동생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친구도 하나 없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이 되네. 주말 부부로 사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엄마, 친구가 없긴 왜 없어요? 하루 종일도 심심하지 않을 멋진 친구들이 널렸는데! 봐요~ 지금 이 순간 내 베스트 프렌드는 형사 해리홀레야.”

노르웨이가 사랑하는 작가 ‘요네스뵈’의 형사 해리홀레 시리즈 중

‘스노우맨’을 읽고 있던 나는 장난스럽게 읽고 있던 책을 들어 엄마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요즘 이 작가에 푹 빠져 열 권 가까이 되는 시리즈를 사고, 자다가도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 읽을 정도였거든요. 새벽에 종종 화장실 가던 엄마가 스탠드 불빛 아래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던 내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엄마는 곧 이해한다는 의미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알던 장소도 하나 없는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지로 통하는 ‘영도’라는 곳으로, 우리 집은 영도의 끝, 절영해안도로 바로 근처였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라고 하면 알까요? 광주 토박이인 내가 큰맘 먹어야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바다를 이제 365일 쳐다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역시나 내 평생의 친구, 책이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부산영도도서관’이 있었고,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이 도서관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다 뷰 도서관이라니! 통 유리창으로 탁 트인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그 맛이라니! 책장이 술술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혼자라는 쓸쓸함을 거의 잊을 수 있었습니다.

책이라고 하면 학창시절 교과서밖에 모르던 남편도 책 읽는 아

내 덕분에 책의 맛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회사가 제공한 원룸 사원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우리는 기본적인 가구 말고, 가장 흔하게 잡히는 것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기본 10권은 책을 빌려와야 마음이 놓이는 내 성격 탓에 식탁에도 화장대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손만 뻗치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다가도 뒷내용이 궁금해 스탠드를 켜고 조용히 책을 읽는 내 모습에 처음엔 깜짝 놀란 남편은 슬그머니 일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핫초코를 말없이 타서 내 옆 탁자에 놓아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책에 푹 빠져있던 나는 달콤한 향기에 한 번, 남편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또 한 번 취해버렸답니다.

“남편~! 우리 이번 주말엔 낭만적인 데이트해요.”

“그래, 오랜만에 우리 와이프랑 멋진 데이트 해 볼까?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응! 걸어서 10분 거리에 우주최강 로맨틱 데이트 명소가 있어!”

“정말? 그런 데가 다 있다고? 영도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그런 곳이 어디지?”

“영도도서관!! 내가 좋아하는 3층 종합열람실이요.”

“도서관?! 나 도서관 트라우마 있는데. 수능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숨 막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걸음마를 떤 아이처럼 이제 막 독서의 맛을 느낀 남편에게 나는 함께 도서관에 갈 것을 제안했고, 처음에 남편은 거부반응을 보이며 거

부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아이한테 100m달리기를 시키는 격이라나요. 본인은 책의 간을 보는 수준인데, 책을 천천히 음미하는 나랑 겸상을 하는 격이라며 남편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책이 있는 원룸 풍경이 남편을 독서의 세계로 이끌었듯이,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아름다움을 그 벅찬 감동과 행복을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과가기 싫은 아이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는 함께 영도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와! 영도에 10년 넘게 살면서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일요일 새벽부터 도서관에 왜 가나 의아했는데~! 여기 진짜 책 맛집이네.”

“새벽뿐이겠어? 가끔 내가 해 질 때까지 들어오지 않아 걱정된다고 했지. 새파란 바다도 멋지지만, 노을이 질 때 이 바다가 붉게 변해요. 그럴 땐 책을 읽는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해서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나는 남편과 도서관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 “Fall in love”해 버린 남편이 많이는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함께 와서 책 읽자며 먼저 약속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이는 이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투닥투닥 말다툼 했을 때면 속상한 마음을 안고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책에 파묻힙니다. 그

러면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느낀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몇 시간이 흐르고 정말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거든요. 왜 그렇게 화가 났었나 나조차 의아할 정도로 나쁜 감정이 사르르 녹아버리게 된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책을 읽으며 제목에서부터 격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며 사람들과의 부대낌에 의연해질 수 있었습니다.

책은 정말 마법 같은 녀석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새 없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 주는 든든한 나무 같기도 하고, 가끔 답답한 현실을 잊고 상상의 나라를 훨훨 펼칠 수 있게 어디든 데려다 주는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 같기도 하니 말이에요.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책 읽는 우리 부부, 주말에 다정하게 도서관 데이트를 즐기는 우리야말로, 세상 가장 멋진 커플 아니겠습니까?

책을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책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우리 남편! 한우만큼 맛있다고 하니, 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이 정말로 책에 푹~빠진 것 맞지요?

이번 주말엔 부산의 유명 도서관을 뒤져서 남편과 도서관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나 설렙니다.

사랑하는 책과 남편이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한 주부랍니다.

|가작|

책이 있는 풍경

박수득 경남 김해시 구산동

분리 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손이 황급히 멈춘다. 누군가 폐지 수집장에 대어섯 질의 전집을 버려 놓았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모든 물건이 혼하디혼한 요즘이다. 누군가 날마다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두르는 것일까. 눈만 뜨면 신통방통한 것들이 푹푹딱딱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기 무섭게 버려진다. 가끔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심스레 책 앞장을 들추어 본다. 장정판의 표지가 반짝거리는 것이 아직 새 책 냄새도 채 벗지 못했다. 그야말로 파끈파끈한 녀석들이다. 이제는 다 커 버려 이 책을 읽지 못할 아이를 생각하니 못내 아쉽다. 산을 이룬 듯한 책 무더기를 두고 돌아서려니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다.

집으로 올라와 손을 씻고 차를 마신다. 찻물이 몸을 타고 내려가니 열에 들떴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순간 잊었던 어릴 적 기억이 내 마음에 등불을 켜다.

어렸을 적 나는 김해의 작은 면 소재지 외곽에서 살았다. 지금이야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농 복합도시를 거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시절 이곳은 하루 서너번 다니는 버스를 늦지 않게 맞추어 타야만 면 소재지로 나갈 수 있는 시골이었다. 부모님은 이른 봄이면 모판에 뿌릴 볍씨를 물에 담그는 것을 시작으로 한겨울까지 주인집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사를 했다. 동이 트기 한참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일하고 또 일하셨다.

겨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하우스 덮개를 덮어주고 아침 해가 오르면 덮개를 걷어냈다. 한밤중에 눈이라도 올라치면 새벽 일찍 나가서 하우스 위 눈을 털어냈다. 그 부지런하고 규칙적이며 한결같은 일들의 연속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사뭇 숙연해진다.

주인집 비닐하우스가 간밤의 폭설로 내려앉을까, 주인보다 더 일찍 깨어나 홀로 추운 눈길을 걸어갔을 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는 나가시며 우리에게 목 위까지 두꺼운 광목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지만, 아버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기가 돌았다.

어린 날 나는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주인집을 즐겨 갔다.

종이에 기름칠한 바닥이 깔린 우리 집과는 달리 주인집은 시골에

서는 보기 드물게 연탄을 태워 겨울에도 방바닥이 늘 일정하게 따듯했다. 주인 내외가 일하러 나간 집에서 주인집 아이와 놀아 준다는 나 나름의 구실도 있었다. 반질반질한 노란 비닐 장판이 깔린 주인집 이불 아래에서 좋아하는 문학 전집을 읽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였다. 그때까지 읽은 책이라야 오빠가 학력 우수상과 같이 받아왔던 보물섬이나 우등생 같은 만화가 곁들여진 잡지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신세계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나는 주인집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목적을 염두에 둔 교류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여념이 없이 주인집으로 향했는데 주인집 책장이 잠겨있지 않은가. 혹시나 열렸나 해서 이후로도 두어 번 더 가 보았지만, 투명 유리장 너머로 책만이 반짝거릴 뿐 자물쇠로 잠긴 책장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나는 속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돌아섰다. 어린아이의 짐작으로도 이건 너무 치사한 처사라 여겼다. 더할 수 없이 서운했지만 소심하고 여린 가난한 집 아이는 언제나처럼 포기가 빨랐다.

가을걷이가 끝난 뒤 아버지는 느긋한 충만감에 둘러싸여 흡족해하셨다. 여느 날처럼 저녁 밥상에 오종종하게 둘러앉은 날이었다.

“아버지 저도 책 좀 사 주세요.”

“그래. 한 권이면 되냐.”

“아니요. 한 질로 사 주세요.”

나는 짐짓 호기롭게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는데 들고 있던 수저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는 애가 왜 이러냐며 배추가 맛이 들어 달다셨다. 그리고선 아버지께 신경 쓰지 말라시며 급하게 저녁상을 물렸다. 그 날 이후로 쥘쥘하고 불편한 밥상이 여러 번 더 오간 뒤, 드디어 나도 금성출판사 세계 문학전집을 손에 넣게 되었다. 까닭 없이 웃음이 나고 마음 속에 둥근 달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표지가 너털너털해 지고 속지 군데군데가 떴다.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를 읽은 밤이면 독특하고 우울한 문체와 함께 기괴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고양이 울음소리에 괜스레 신경이 곤두섰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을 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뻐으며 어렴풋하게나마 자연과 자유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를 읽을 때는 주인공 한스를 둘러싼 어른들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혼란과 방황 속에서 비참하게 귀결되는 한스의 삶을 보며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교육환경과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나를 심각한 고민을 던지기도 했다.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 겨울이 끝나도록 할부 책값을 갚느라 전전긍긍하며 주인집 하우스 일을 홀로 도맡아야 했다.

그때 여러 번 정독해서 읽은 책들이 지금까지 내 안에 흐르고 흘러 나를 이루고 나의 말이 되고 글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닐는지. 더하여 내 안을 데우고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그때 어려운 형편에도 흔쾌히 책을 사 주셔서 두고두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여유가 되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술을 한 잔 받아드리고 싶다. 아버지가 술이 참 달다라고 말씀하시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이제 차도 다 마셨으니 다시 분리수거장으로 내려 가 봐야겠다.

책들을 정리하고 소독해서 일부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꽂아두고 일부는 책을 좋아하는 친한 동생에게도 나눔 해야겠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며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나는 그저 이 예쁜 책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두루두루 읽히기를 바랄 뿐이다. 어쩌면 힘든 날에 끄집어내서 읽힐 추억 한 조각으로 피어나도 좋겠다. 책을 읽은 사람들의 삶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꿈꾸어 본다. 그리하여 세상이 여린 봄날의 풀꽃처럼 조금 더 유순해지길 기대해 본다.

아버지의 서재

박윤정 경남 김해시 관동동

“우리 집은 박물관 같아!”

경이 건조한 톤으로 내뱉는다.

모처럼 한가한 일요일 오후.

소파에 온몸을 풀어헤치고 드러누운 열여섯 살 경이. 허공을 떠돌던 시선이 거실 한 켠 벽면을 차지한 책장에 머물렀던가 보다. 경이 외할아버지 책들. 서재 전체에서 그 책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삼분의 일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경이 눈에 가득 차 보였나 보다. 어릴 적 우리 집 방 안에는 온통 아버지 책들로 가득했는데... 그러고 보니 이제 정말 몇 권 남지 않았다.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도 낡은 책들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다니는 나를 아이들은 이해 안 된다며 투덜거리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책 한 권을

어쩌다 꺼내기라도 하면 오래되고 낡은 책을 둘러싸고 있는 겉표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스라 버릴 것처럼 삭아있었다. 그 책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오랜 세월 참 장하게 견뎌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오곤 했다.

경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낸다. 먼지가 뿌연 겉표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 천천히 속에 든 책을 끄집어낸다. 마치 고대 유물 발굴하듯 아주 진지한 표정이다. 책을 감싸고 있는 겉표지는 체온이 닿자마자 부스럭거리며 누런 종이가루가 마루 위로 떨어진다. 경이는 미간을 잔뜩 모으고 더 긴장된 표정이다. 속에 든 책은 질감 있는 반투명 비닐이 표지를 입히고 있다. 책 두께는 보통 5센티미터가 넘는다. 두께만큼 누렇게 바래져 있다. 경이는 오른쪽 표지를 한 장 펼친다. 외할아버지 책은 오른쪽부터 시작이라는 것 정도는 안 지 오래다. 작가 두세 명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펼쳐진다. 요사이 찾을 수도 없는 편집이다. 유고 작가들 전집류에나 가끔 삽입될까. 경이는 그 사진들에 눈이 간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시대 작가들의 평범한 일상을 찍은 사진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모습,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며 노래 부르는 사진, 서재에 앉아 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 롱코트 차림으로 전차가 다니는 길에 서서 몇몇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일제 강점기에 교복 입은 단체사진 등... 마치 제집 식구들 사진첩을 보듯 경이는 마냥 신기한 눈빛으로 한 장 한 장 넘긴다. 나는 그런 경이를 소파

에 기대앉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전 나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꿈이 시인이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전집류나 신간이 있으면 월급을 다 털어서라도 반드시 사고야 말았다. 덕분에 어머니 잔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늦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서야 자식을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오랜 벗들은 모두 우리를 손자처럼 대했다. 아버지 고향 친구 가운데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유하게 사는 친구가 있었다. 그분은 외동딸 옷을 모두 서울 고급 양장점에서 맞춰 입히곤 했다. 그 물림은 모두 내 차지였다. 그래서 내 유년기는 평범한 옷이 없었다.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허리끈으로 매는 녹색 체크 코트, 온통 손 자수가 가득한 상의, 순모로 만든 붉은 치마, 바짓가랑이에 꽃 자수가 가득한 나팔바지 등... 많이 거북하고 불편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거북했고 아이 옷 같지 않은 고급스러움에 거북했다. 물려 입은 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사람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늘 말이 없었지만 가끔 옷 투정을 부리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물려 입어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겨울, 아버지는 잠이 덜 깬 어린 나를 깨워 손을 잡고 새벽시장에 갔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주하게 역동

적으로 움직였다. 새벽 경매 소리, 짐꾼 소리, 장사꾼 외치는 소리! 아버지는 장 한편에 파는 만화 캐릭터가 새겨진 녹색 트레이닝복 한 벌을 사주었다. 내 기억에 그 옷을 무릎이 닿도록 입고 다녔던 것 같다. 같은 반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시장에서 파는 바로 그런 옷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좋았다.

아버지처럼 나도 유난히 책을 좋아했다. 어찌면 젖먹이 때부터 책 냄새를 맡고 자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 뜻도 모르면서 틈만 나면 아버지 책을 꺼내 방 한가운데 놓고 엎드려 읽었다. 그러다 잠이 들곤 했다. 코끝을 감도는 누릿한 책 냄새.

동아백과사전. 초등학교 삼사 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전집이 처음 나올 때 지방이라 구하기 어려워 그랬던지 아버지는 일주일마다 한두 권씩 나눠 들고 왔다. 커다란 가방에 그 무거운 백과사전을 불룩하게 넣어서 늦은 밤 몇 정거장을 걸어왔다. 버스비를 아껴 책을 샀기 때문이었다. 책을 가지고 오는 날은 술도 마시지 않았다. 처음에 어린 우리는 맛난 야식이라도 있나 하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방을 열른 받아 꺼내 보았다. 돌덩이처럼 무겁고 아주 두꺼운 책 뿐이었다. 초 천연색 칼라 백과사전. 먹을거리는 아니어도 정말 신기했다. 그런 밤이면 아버지와 나는 의기투합이 되어 그 칼라 백과사전을 보느라 잠도 설쳤다. 둘이 나란히 매트 위에 엎드려 신이 나서 사진들을 정신없이 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다란 책

이 아버지와 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방 안에 다 들어찬 것처럼 부유했다. 정말 그랬다.

문득 책장 아래에 꽃힌 백과사전을 보면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경이가 어느새 천천히 책을 소리 내서 읽어 내리고 있었다. 두 단 세로 읽기가 어려운가 보았다. 마치 암호문 해독하듯이 더듬 더듬 한 자씩 눈 새김을 한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경이는 알까? 할아버지 책들이 어떻게 모여 저기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월급을 쪼개고 밥값을 아끼고 차비를 아껴가며 외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한 권 한 권 모았던 서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벌써 나는 마흔을 훌쩍 넘은 나이다. 아버지는 내 나이에 둘째를 낳았다. 그리고 마흔 후반에 또 막내를 낳았다.

어릴 때는 미처 몰랐다. 아버지가 왜 시인의 길을 포기했는지, 왜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는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으며 평생 살았는지, 왜 휴일이면 내 손을 꼭 잡고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는지. 아버지 단골 찻집에서 보았던 그림 그리는 사람들, 노트에 뭔가를 항상 적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왜 아버지 습작 노트를 내게 물려주었는지를.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변변하게 내 이

름 석 자 짝한 책 한권 내지 못하는 나를, 당장 끼니를 위해 그때의 아버지처럼 어울리지도 않는 장부를 눈알이 터지도록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길을 포기해 버리고 싶어지는지를.

이제는 정말 조금은 알 것 같다.

대학 시절, 처음 백일장에서 상을 받고 시상 장면이 뉴스에 잠깐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표정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제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제일 담담했다.

“그 길을 가려고?”

그 한 마디뿐. 그리고는 씩씩하게 등을 돌리며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때 참 많이 서운했다. 나는 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단순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 가는 데 대한 질투심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점점 지치고 외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외면했다.

아버지 임종을 지킨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 늦은 밤 급하게 지갑을 들고 슬리퍼를 신은 채 구급차에 동승한 단 한 사람. 그 길이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몇 번 위급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고비라고만 다들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길로 아버지는 영영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자정 가까운 그 시간에 응급실 구석에서 임종을 지키며 나는 혼자 벌벌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숨 소리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마지막까지 삶의 평화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밤에 아버지와 나는 영원히 화해하고 말았다. 나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밤새 그치지 않았다. 참 이상했다.

내 뒤편으로 돌아온 유품은 습작 노트 한 권과 생전에 모았던 책들. 아버지가 학창 시절부터 썼던 시들이 가득 들어있는 습작 노트와 오래된 낡은 책들이었다. 유품을 집에 들고 온 후 결심했다. 아버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와!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경이가 밝은 톤으로 노래 부르듯 내지른다. 빛바랜 흑백사진 속 아버지. 환하게 웃으며 철길 옆에 앉아 있다. 경이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좋아했다. 그 전집류 속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나 보다. 나는 사진 뒷면을 돌려보았다. 빛바랜 푸른 빛 만년필로 쓴 글씨체가 번져 있었다.

‘꿈을 위해!’

아!

사진 속 하얀 와이셔츠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 서재는 내게 꿈이며 희망이며 동경이다. 그리고 현실이며 삶이며 유산이며 미래다. 사진을 바라보는 경이 눈빛도 유난히 반짝였다. 멀리 창 너머 노을이 구름 사이로 천천히 황홀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가면

박혜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집안에 모였다. 딸아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를 하지 않고 나도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거실에 뒹굴면서 가면 놀이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놀아보지 못한 탓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침묵이 오히려 더 답답했다. 마침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며 도서관에 가야겠다고 졸랐다. 이참에 온 가족이 도서관에 가서 새로 나온 책도 보고 읽고 싶은 책도 한두 권씩 대출할 요량으로 옷을 챙겨 입었다.

“엄마, 코로나가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 책을 읽고 주말에 같이 얘기할까?”

딸의 제안에 남편도 좋아했다. 도서관도 코로나 여파로 한산했다. 책을 고르는 사람이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치 거대한 비밀을 절대 입 밖으

로 내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재갈을 물린 듯하다.

사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교와 불교사상이 깊이 뿌리내렸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성을 바람직하고 옳은 것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감성은 가슴속에 꼭꼭 숨겨둬야만 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천대시했다. 분노나 기쁨, 슬픔 등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호들갑을 떨거나 방정맞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고 채신머리없다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사람은 감정을 나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 억누르며 참고 살아왔다. 어쩌면 우리는 재갈이 물린 채 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수의사가 꿈인 딸아이는 동물 관련 책들을 골랐고 남편은 표지에 벚꽃 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수필집을, 나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잡았다. 아주 오래전에 도서관에서 몇 장 읽다가 말았던 책인데, 다시 읽어보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 있다면 과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격할 수 있을까.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실격’이라고 비난한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익숙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웃기곤 하였다. 일부러 넘어지거나 광대 같은 짓을 하고 재롱도 부리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한다. 그런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쁘지도 행

복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현관을 들어서자 마스크부터 벗어 던졌다. 이제야 재갈을 풀고 자유로운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다. 과일을 먹으며, 온 식구가 독서삼매경에 빠졌다. 남편은 몇 장 읽더니 벌써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고 딸아이는 학교 숙제로 제출하려고 밀줄까지 그어가며 열공이다. 주인공 요조를 만나러 다시 책 속을 파고든다.

자신의 슬픔이나 고뇌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연기를 하며 살아가던 요조는 사랑도 학업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원하는 게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건지 헷갈린다. 가면 속의 요조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고 만다.

이틀 동안 재택근무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코로나로 사무실은 완전히 전쟁터였다.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면서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처럼 투구를 쓰고 앉은 모습이다. 회의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오니 주인공 요조가 기다리고 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를 포기한 채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 자기 자신은 텅 비어 있는 무(無), 바람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요조는 사랑하는 데 서툴렀다. 어쩌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던 건 아닐까. 자기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눈을 얻을 수 있다.

텅 비어 있는 바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이다. 요조는 삶의 전쟁터에서 전략을 잘못 짚게 분명하다. 그는 패잔병이었다.

퇴근하고 간만에 친구들과 파스타를 먹으러 갔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바닥에 깔린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손님보다 직원들이 더 많았다. 파스타를 들고 오는 마스크 쓴 직원을 보니 이곳이 마치 무도회장 같다는 착각에 빠진다. 각양각색의 마스크들로 얼굴을 가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나는 갑자기 중세시대의 왕족이 되었다가 귀족이 되기를 반복한다.

살아가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요조들을 만난다. 요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행복을 강요받는다. 부잣집 도련님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건 용납하기 어려웠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혹여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실망할까봐 두렵고 부담스러웠다. 요조는 자기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다고 말한다. 모두 같은 가면을 쓰고 피에로처럼 웃어야 하는 세상, 상대방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세상에서 요조는 발버둥 쳤다.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숨겨져 곰팡이가 피고 썩어갔다. 감정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사회는 웃음을 강요했고 감정은 몇 가지로 단순해지고 급기야 사라져갔다. 가면 속의 요조는 공허한 가슴을 술과 여자로 채워보지만 갈수록 갈증만 깊어간다. 썩어버린 감정은 요조의 말처럼 그냥 바람이 되어버렸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짊그리 잊은 채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닐까. 요조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익살스런 행동으로 덮었던 것처럼 집단에서 함께 어울리고 성공하기 위해 조금 무뎌지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다. 진실한 감정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다른 무언가를 좇아 가면을 쓰고 나의 삶을 구걸하며 살아왔다.

코로나로 인하여 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면을 바꿔쓰며 나를 놓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한 채 재갈을 물고 살아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면으로 포장하지 않고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하여 건강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더이상 온순한 노예가 아닌 오롯이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요조가 꿈꾸던 인간의 조건은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고 건강한 자기감정을 지닌 인간의 민낯이 아니었을까.

|가작|

아버지의 유산

이남숙 대구 수성구 상동

노년의 아버지는 늘 돋보기안경을 낀 채 책을 읽고 계셨다. 당신이 돌보고 있던 손자가 얼굴과 옷이 짜장면으로 뒤범벅이 되도록 저지레를 하고 있어도 모를 만큼 책읽기에 푹 빠져서 지내셨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시간에는 항상 책이 곁에 있었던 것 같다.

젊은 아버지는 퇴근 후 먼지 묻은 검푸른 군복을 벗어 어머니에게 맡기고는 째름이 책을 읽으셨다. 주말 오후 모처럼 온 가족이 소풍이라도 갈라치면 꼭 읽을거리를 가지고 가셨다. 하늘엔 흰 구름 몇 점, 오리배 서너 척이 떠다니는 '수성못'을 배경으로 펴놓은 돛자리 위에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책을 읽고, 막내 동생은 서서 동요를 불렀다. 엄마는 손뼉을 치고, 또 여동생은 막 하늘로 사라지려 하는 풍선 줄을 들고 있는, 온가족의 모습이 담긴 흑백사진은 빛바랜 사진첩에도 내 추억 속에도 남아 있다. 중년이 된 아버

지는 퇴직하신 후에는 더더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으셨다. 아마 『삼국지』나 야마자키 도요코가 쓴 『不毛地帯』, 야마오카 소하치의 『大望』등의 대하소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읽으면 새벽까지 내쳐 읽으실 때가 많아서 독서등 불빛에 밤잠을 설치는 어머니가 종종 잔소리를 하실 정도였다.

장녀인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상급반으로 진학한 이웃의 언니 오빠들이 읽다만 동화책을 몇 권씩이나 얻어다 주셨다. 벌써 여러 손을 거쳐서 낡은 대로 낡은, 더러는 누렇게 변한 얼룩까지 있는 조잡한 지질의 책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흰 자작나무 숲이 끝도 없이 펼쳐진 북유럽에 사는 요정이며, 일곱 켄레 쇠 구두를 신고 초록산을 넘어 갓은 고생을 다하며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를 찾아 떠나는 막내딸, 그리고 어느 인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며 변덕을 부리는 올림푸스의 12신들의 이야기가 나를 상상의 세계로 데려가곤 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나를 가장 매혹 시킨 것은 『보리와 임금님』이라는 동화집이었다. 저자 ‘엘리너 파전’은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집에는 ‘작은 책방’이라는 방이 있었다. 갖가지 책들이 뽁뽁이 들어찬 책꽂이가 벽의 절반을 차지했고, 책꽂이 위로도 천장까지 책들이 들쭉날쭉 쌓여 있었다……. 이 작은 책방에서 나는 ‘찰스 램’처럼 책이란 책은 모조리 읽을 수 있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금빛 먼지가 춤추는 모습이 보인다. 별 모양의 먼지, 금빛 먼지…….” 『엘리너 파전』의 이 아름다운 문장을 읽고 나

서, 나는 그녀처럼 책으로 둘러싸여 황금빛 먼지가 쌓인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며 사는 삶을 막연히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인지 아버지는 방문한 서적 판매원에게서 책을 한질 사주셨는데, 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책을 사주셨던 그 날의 기쁨과 설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얀색 표지를 입힌 4.6판 크기의 하드커버로 된 장장 100권짜리 계몽사 세계명작 전집이었으니, 평생 근검절약한 아버지로서는 아마 큰맘을 먹고 사주셨을 터였다. 흰고래 모비딕, 젠다성의 포로, 아이반호우, 원탁의 기사, 시이튼 동물기, 홍당무, 하늘을 나는 교실, 80일간의 세계일주, 쿠오 바디스, 은 나이프, 위대한 왕, 기암성, 우주전쟁, 돌리틀 선생님 항해기, 주홍꽃, 곰 푸우, 메어리 포핀즈……. 지금도 다시 읽고 싶은 그리운 책들이다. 결국 그해 여름 방학, 전집의 반 이상을 읽어 치운 나는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한쪽 볼이 퐁퐁 부어있었다. 왼손으로 턱과 얼굴을 받치고 하루 종일 책을 읽었던 잘못된 자세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성장하고 더 나이를 먹고, 그 후로도 나는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은 관심 가는 대로 많은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기억에 가장 오래도록 남아 있는 책은, 국민학교 시절 읽은 아버지가 구해오거나 사주신 그 책들이었다. 고단한 세상살이에, 믿었던 사람의 변심에,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움츠러들 때마다 그 때 읽었던 책들이 떠올랐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용기가 필요한 날에도, 그 책들이 위로를 주었고 호연지기를 선사했

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직장 생활 4년 차의 슬럼프를 겪을 때에도, 승진에 연거푸 누락되어 자존감이 바닥일 때도, 중병에 걸려 장기를 떼어내는 목숨을 건 수술을 받고 나서도 나에겐 다행히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 그 시절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마음을 유연하면서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다시 생각해 보아도 참 감사한 일이다.

늘그막에 책과 커피와 낚시를 즐겨하셨던 그 단단하고 고집스럽던 아버지는 칠순이 되기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빈농의 일곱째 자식으로 태어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 터전을 구했고 결혼을 했다. 아버지는 원칙주의자이고 본디 융통성 없기로 유명하셔서, 친구분 중에는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들도 계셨건만,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자식의 취직 부탁 한번 건네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남겨놓으신 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엄마와 아들인 동생들이 물려받도록 해두었다.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내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물려주신 것이 없게 되었다. 하물며 당신이 지닌 보기 좋은 큰 키나 탄탄한 체력도 물려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다. 아버지는 내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 더욱더 값진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물려주셨다는 것을. 덕분에 나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했고, 훗날 책과 밀접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져서 책 읽는

일이 불편해진 것이다. 앞으로 이토록 소중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 듯하니 슬프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올해는 코로나 19가 염려되어 자주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는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대전 현충원에라도 다녀와야겠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캔 커피와 책이라도 한 권 손에 들고 가서 찾아뵙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나는 도서관 인문학자료실 900번대 서가 사이를 지나간다.

할머니와 헤르만 헤세

이도화 대전 유성구 덕명동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 길에 전교생이 줄을 서서 환호를 했었던,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해까지는 작은 고모, 막내 삼촌도 같이 살았으니 식구가 열세 명이었다. 삼대가 한집에 같이 살면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위로는 오빠 둘, 아래로는 여동생이 넷인 일곱 남매 중 맏딸인 나는 그 외로움이 유별났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오르고 땅거미 진 골목에서 친구들과 한창 놀고 있어야 하는 시간에 나는 쌍둥이 동생을 돌봐야 했다. 친구 집에 모여서 숙제할라치면 할머니는 꼭 나를 데리고 산비탈에 있는 뽕나무밭에 갔고, 일요일 아침 만화영화 하는 시간에는 고추밭에 농약 치는 줄을 잡아야 했다.

대식구이다 보니 오빠들과 삼촌이 한방을 쓰고, 동생들은 부모님 방에, 나는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방을 썼다. 사랑방 아궁

이에서 쇠죽을 끓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방이 뜨끈뜨끈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있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면 큰 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대화가 마당까지 들렸는데 거기에 끼지 못해서 오는 헛헛함이었을 것이다. 사랑방 옆에 외양간이 딸려 있었다. 새벽에 소가 잠을 깨면서 내는 울음소리에 웬지 서운한 내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나의 마음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감나무잎 신세 같다고 일기장에 적기도 했었다.

다행히도 텔레비전이 사랑방에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일로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셨는데 나는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아도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텔레비전 불빛이 할머니 쪽으로 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려서까지 즐겨 봤던 것은 ‘명작의 고향’이었다. 세계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둘러보며 작품의 인물들과 작가에 대해 알려주었다. 키 크려면 일찍 자야 한다는 할머니의 걱정보다 세계 명작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나를 더 끌어당겼다. 나는 그때부터 아나운서와 작가를 꿈꿨던 것 같다. 언젠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답답한 동네를 떠나 넓은 곳으로 비상하고 싶었던 욕망을 나는 ‘명작의 고향’ 나레이션을 되뇌며 동경도 하고 상상을 마음껏 펼치곤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문학책은 시기와 질투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었다. 표준전과 한 권으로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공

부했던 시절이라 문학책을 구매하는 것은 명품가방 버금가는 사치였고 차마 책을 사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다. 아버지가 철도공무원이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학비를 지원받아 좀 수월하게 학교에 다녔지만, 초등학교 당시에는 남의 농사를 부치며 살던 때라 연필, 공책도 넉넉하지 못했으니 문학책을 사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숙희 집에는 각종 책이 전집으로 있었다. 숙희 집에는 방 하나가 책장으로만 가득한 것을 숙희랑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봤다고 했다. 숙희 아버지는 우리 면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으로 유명했다. 면장보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더 들을 정도였다. 나는, 서울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라고 잘난척하던, 면장 딸이었던 경화도 미웠지만, 날마다 세계 명작을 한 권씩 학교에 가져와서 자랑질하던 숙희가 더 미웠다. 그런 숙희를 선생님들은 나와 자주 비교하기도 했고 숙희를 좀 더 칭찬했다. 숙희도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였고 글도 잘 썼다. 그때는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경화도 사투리가 심하지 않았던 숙희는 나보다 목소리가 더 고왔고 발음도 정확했다.

하루는 <소공녀> 책을 가져와서 숙희가 반 애들에게 줄거리를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숙희 주변에 모여서 책 한번 만지게 해달라며 숙희를 떠받들다시피 했고, 나는 속이 꼬이고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운동장을 계속 뛰었던 기억이 난다. 책 한 권 사주지 않는 부모님이 미웠고 맨날 일만 시키는 할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위인전으로 가득 찬 학교 도서관보다 세계 명작이 더 많은 숙희 집이 궁금했다. 하늘을 찌르던 내 자존심은 어느덧 숙희 손을 잡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비밀인 숙희의 아킬레스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숙희 집으로 갔다. 숙희 아버지는 다정한 분이었다. 목소리도 좋으셨는데 서울말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인상에 오래 남아서 ‘명작의 고향’을 즐겨 봤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동급생보다 몸의 성장이 좀 빨랐다. 6학년이 되어서는 선생님과 나란히 할 정도로 키가 컸다. 그해 여름방학 때 생리를 시작했다. 엄마가 노란색 상자에 생리용품을 챙겨주셨고 할머니는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당시 ‘뒷줄에 앉는 애들’로 불린 키가 큰 몇몇 친구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 위안을 하며 그 시기의 막연했던 두려움을 같이 건넸던 것 같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 싶다. 나를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뭐랄까? 사탕으로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에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고 할까.

목청 좋았던 할머니는 어디서 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보니 내 어린 시절은 온통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으로 그득하다. 산나물 캐면서 불러준 노래들, 절에 가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스님 말씀 듣고 나면 챙겨주신 공양 밥이며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먹을 수 있었던 기차여행은 모두 할머니와 함께였다. 혼을 낼 때마다 손녀가

애처로웠던지 밤새 안아주신 그 품에서 나는 갓 난 어린애처럼 응석 부리다 웃으며 잠이 들곤 했다.

가을걷이가 끝나 가는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내 고향 영천은 2일, 7일에 장이 섰다. 할머니는 차분한 옥색 한복을 차려입으시곤 장에 가자 하시더니 한복에 어울리지 않게 성큼성큼 걸으며 앞장서셨다. 중학생 동네 언니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고추 튀김과 순대를 기대하며 버스에 올랐다. 장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서점을 물었고, 나는 가슴이 뛰어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 뒤를 따랐다. 내가 ‘헤르만 헤세’를 수십 번 되뇌는 것을 들으셨는지 그 책을 사주겠다고 하셨다. 외국 작가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나는 대번에 할머니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명작의 고향’ 나레이션 중에서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데미안>의 첫 구절이었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나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고 그 후로 헤르만 헤세를 반복하며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내 마음을 읽으셨던 모양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슴에 품고 서점을 나서는데 이제부터는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았다. 몇 날 며칠을 잠잘 때도 책을 품고 잤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헛헛함을 달래기에도 충분했다.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나

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갈망했던 것 같다.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밖에서 함께 알을 쪼아주고 계셨다. 되돌아보면 집을 떠나 학업과 내 일에만 집중하느라 할머니를 잊고 살았다. 그 시간이 아깝고 후회로 밀려온다.

나이를 먹는 것이 책을 읽지 않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벽잠을 깨운다. 헤르만 헤세의 지적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쿵쾅 뛰었던 그 감수성은 오롯이 되찾을 수 없더라도 할머니와 함께 열었던 알싸했던 그 세상을 기억하며 다시 책을 읽는다. 나도 누구에게 줄탁동시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책과 글쓰기를 늘 곁에 두고자 한다.

바람의 향기

이상희 경북 안동시 안기동

강변으로 향했다. 다른 날은 동쪽으로 발길이 갔지만, 오늘은 물길 따라 내려가고 싶어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걷는 게 아니라 바람을 밀면서 걸음을 옮겨야 했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고, 세찬 기운이 온 몸으로 도전해 와서 걸음걸이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이제까지 지나온 노동의 무게와 없는 형편에도 배워야만 하는 빠져린 고통의 길. 그리고 내가 가고자하는 길에 버티고 선 방해하는 것들과 마주했을 때의 심정과 닮은 듯 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만 했지만, 보이는 것은 기어코 보이곤 마는 게 있었다. 금계국과 강변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갈대무리와 핑크물리의 다듬지 않은 마른 일렁임을 주시했다. 놀랍게도 그 흔들리는 겨울 잎 아래엔 새로 태어난 새순들이 마른 잎에 기댄 듯 보호받고 있었다.

사실 온갖 색채의 초록 물결이 파도처럼 밀릴 때면, 그 마른 잎들이 눈에 거슬리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부모가 늙어서까지 자녀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며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마른 풀들은 숭고한 희생을 멈추지 않고, 닭이 병아리를 날개 밑으로 모아들이듯 새싹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경이롭다. 그것들은 위에서 아래를 지키며 버티고 서있다.

발아래를 보니, 어린 잔디의 싹 아래에선 마른 잔디 잎이 방석과 거름으로 어린 싹을 떠받치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마른 잔디의 희생을 생각하니, 잔디를 밝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방해자가 되고 싶지 않기에.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며 안아주는 엄마 품 같은 사랑이 보이는 잔디의 풍경이다. 갑자기 발바닥이 따뜻해져왔다.

책과 도서관은 내 인생에서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자면 뼈 같은 존재이다. 가장 힘겹고 불행하기만 했던 사춘기를 거뜰히 건너갈 수 있게 해주었고, 육아의 우울증도 책속에 빠져서 온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니 어느 순간 안개가 걷히듯 사라졌다.

네 아들을 키우면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무리 바빠도 도서관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갔다. 책도 읽어주고, 가며오며 운동과 대화도 하고, 대출한 책도 한 가방씩 어깨에 메고 와서 맘껏 읽게 했다. 그러니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을 거의 다 키웠다고 보면 된다.

작지만 도립 안동도서관 앞에 마당이 있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놀

이터를 대신해 주며, 머리로 식혀주고, 많은 아이들과 일에 지친 나에게 자판 커피로 삶에 시들어가는 목도 축이고, 문학과 친해지며 살 수 있는 삶의 여유까지 도서관은 허락했다.

고된 시집살이의 진하게 흘리는 눈물도 도서관은 말없이 닦아주고, 용기를 주고, 참게 해주었다. 내가 아이들과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도서관은 한결같은 부드러움으로 불러주었다. 그리고 따뜻이 안아주었다. 그 힘든 내 인생의 중년에 버티고 선, 피 흘리고 고뇌에 몸부림치는 나를 들어 올려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게 무지개를 걸어놓고 나를 당겼다.

평소 같으면 유유히 흘러가던 강물도, 오늘은 바람결에 떠밀려 거꾸로 요동치며 흐른다. 물 색깔도 짙은 푸른색이며, 물소리까지 사나워서 보는 이까지 괜한 걱정해 휩싸인다. 제 갈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간힘을 써도 역행으로 물길이 밀려나고 있었다.

5년 만에 졸업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인문계로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여상으로 가야했다. 그것도 1학년 1학기 로 끝이 났으며, 별어가면서 다니는 야간고등학교로 가야했다. 면사 공장이라서 폐결핵에 걸려 1년을 요양하면서 쉬었다. 내 삶이 더 이상 앞으로 향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고 희망이 안 보였다.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뒤로만 밀려나는 처지이니, 졸업하는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다. 배우고 싶어도 배움이 허락되지 않던 암울한 시간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도서관 수업에서 만난 김진규 주역선

생님과 함께 한 시간 속에서 많이 해결되었다. 이번에 둘째 아이를 결혼시키면서, 그간 잊고 있었던 주역선생님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듯 나를 도와주었다. 그분께 논어, 대학, 중용, 소학, 서경, 주역 등 귀한 경전을 배웠다. 그때 주워들은 것이 내 삶에 이토록 귀한 거름으로 깔려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

그분의 수업은 특이하셨다. 예를 들어 주역 수업을 하시면서 한 구절의 말씀마다 이 경전 저 경전의 말씀을 모두 데려와서 한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서도 여러 경전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 그분은 아들이 셋이었는데, 네 아들을 둔 나에게 공감아 되고 귀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아들이 많은 사람이 현자에게 가서 물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현자가 대답하기를,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들이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가서 물었다. 저는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거늘, 그 현자께서 이르시기를, 그 며느리를 사랑해줘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다

둘째를 혼인시키며 이 두 구절들이 자주 떠오르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하게 만들었다. 그 힘으로,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모든 배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고요히 머물다가 삶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언어로 튀어 올라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며 살아 갈 생명수로 흐른다.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도 힘겹더니, 어느 장소에 도착 한 후 돌아서 오는 길은 같은 바람이 불었지만 훨씬 쉬웠다. 묘한 느낌이다. 이번에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발길이 가벼웠다. 등 뒤에서 힘껏 밀어 주니 거저 걷는다.

젊어서의 고난과 번뇌와 수고로움은 삶의 스승이다. 물론 피눈물 나는 아픔의 길이기에 상처와 좌절과 불공평함에 온몸을 휘둘리며 살아야 하지만, 어느 일정한 삶의 시점을 찍고 부터는 그 체험들이 지혜로 뒤바뀌어서 웬만한 어려움을 거뜬히 넘어서는 회복 탄력성으로 탈바꿈해버린다.

아직도 바람은 세차서 강물이 거꾸로 밀리며 아우성을 친다. 놀란 아이처럼 새파란 낮으로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던 길로 강물이 유유히 흘러서 바다까지 갈 수 있음을.

|가작

내 인생의 등불

이인순 대전 동구 용전동

어느덧 등 뒤로 석양의 빛을 받으며 인생의 산마루를 내려가고 있는 제 나이 올해로 칠순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종심소욕불유구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 칠순이랍니다. 이순을 넘어 종심이 됐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지요. 현실과 이데아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나온 발자욱마다 아쉬움과 회한으로 점철되어 있네요. 얼마 전 칠순이라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조출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생일 이벤트 한다고 폭죽이 터지고 하얀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막 다섯 살 된 손녀가 어둠 속에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경이와 당혹감으로 순간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파스텔 톤의 장미꽃으로 수놓은 환상의 케이크에는 “우리들 인생의 등불 엄마! 사랑하고 존경해요”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볼품없이 작고 장애를 지닌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니 저는 감격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60여 년을 훌쩍 넘어버린 세월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6.25 사변 후 태어난 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 살 때 덜컥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96세의 친정 어머니는 딸을 고치겠다고 나를 업고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병원으로 헤매고 다니셨지요. 침을 맞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끼이끼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오버랩 되네요.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내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지는 책이었지요. 아버지께서 출장을 다녀오실 때면 알사탕이랑 책을 한아름씩 건네주시는 덕에 만화 얹개전 어린이 명작 전집 탐정 설록홈즈 전집 등 책을 읽는 동안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정성 덕분에 건강이 좋아져서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서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논이랑 사이를 걸어 다니며 후두둑후두둑 뛰어오르는 메뚜기를 잡아 병에 넣는 재미에 또 들로 다니며 야생화를 보는 것에 푹 빠져 저녁식사를 놓쳐 부모님께 혼이 난적도 많지요. 청소년기에는 학교 공부보다는 소설에 심취해 책들을 섭렵하면서 글을 쓰고 싶은 욕망으로 시나 수필들을 끄적거리 보기도 했지요.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에서 인간의 고귀함이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삶을 향해 손을 뻗치는 거라고. 생텍쥐페리가 늘 그리

워하던 사하라 사막같이 내가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의 사막은 무엇일까?

끝없는 의문의 갈증을 풀지 못한 채 장애인들의 동아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장애가 심하지만 그에 비해 사슴 같은 눈망울에 담겨있는 영혼의 순수함에 이끌리어 결혼을 했지요.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무일푼인 남편과의 삶은 결코 녹록치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간헐적으로 휘몰아치는 돌풍과 풍랑 속에서 그제야 인격적인 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나를 정화시켜 흠과 티가 없는 해맑은 영혼으로 승화시키는 방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파도를 타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한다고 모험을 안 하면 인생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윌리엄포그너가 말했듯이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 둘은 각각 결혼해서 책을 통해 깨달은 느낌들을 문자 메시지로 또는 전화로 서로 나눕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목표를 가지고 가족이란 공동체로 결합하였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쳐다볼 때 그 끈끈한 응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이런 행복한 나눔을 나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2017년 6월에 주부 북클럽을 창설했습니다. 책

은 주부들을 위해 어느 독지가께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삶의 의미도 모른 채 타성에 젖어 일상의 나날들을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회원들 누에고치에 갇혀 파닥거리다 비상 of 나래를 펴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도약을 위해 책을 읽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책값은 팍팍한 살림으로 머뭇거릴 때가 다반사였으니까요. 저희 멤버는 40대 50대 60대로 다양한 연령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단락씩 읽고 느꼈던 단상들을 돌아가면서 나누지요. 때로는 책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아팠던 과거의 상처로 울분을 쏟아 놓을 때 제가 리더로서 난감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누다가 상처가 치유될 수만 있다면..... 또 그 일로 행복의 파랑새를 향해 나래를 펼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동안 북클럽에서 함께 다룬 책은 12권 정도가 되네요.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오헨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이지요. 중한 병 폐렴으로 회복의 가망성이 희박한 무명 화가 존시는 담벼락에 붙어있는 늙은 담쟁이덩굴 잎이 마지막 잎새가 되어 떨어지면 나도 갈 거라고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그 아래 아파트에 사는 예술의 낙오자 베아만이라는 늙은 화가는 찬비 속에서 홀로 담쟁이덩굴을 밤새 그려서 바람에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해 놓고 정작 그 자신은 존시 대신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베아만 노인의 희생은 언젠가는 멋진 나폴리를 그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젊은 존시를 살렸습니다. 베아만의 희생으로 존시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걸작을 그리게

됩니다.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준 그 단편에 우리 회원들은 열띤 토론을 했지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정의가 퇴색해 버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세 살 때 결핵으로 사망해 할머니 댁에서 어렵게 큰 오헨리는 은행에서 계산 실수로 오하이오 교도소에 수감 복역 중 마지막 잎새를 출간했다고 하지요.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이런 아름답고 수채화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작년 3월에는 2박 3일로 북클럽 회원들과 일본 오사카로 나들이도 했습니다. 또 후원자께서 협찬해 주시고 나머지는 매달 조금씩 모아서 여행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해외여행은 처음이라고 좋아하는 회원을 보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3일 동안 오사카성, 아리미 온천마을, 도톤보리의 글리코상, 돈키호테 등등을 둘러보고 김해 공항에 도착해 보니 하루의 일정을 뒤로한 회원들의 남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마중을 나와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너무나 힘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간 소홀히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은 북클럽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읽었던 명작 소설은 뒤로하고 앞으로는 인문학 역사를 다루려고 계획 중입니다. 회원들과 같이 느낌을 나누면서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심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현세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북클럽을 재개하는 소망의 항구로 배를 띄울 그날을 바라봅니다.

|가작

나의 하우(how)는 엄마의 노하우(knowhow)

정예영 대구 달서구 대곡동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때



▲독서클럽 회원들과 독서 나눔의 시간



▲선물 받은 칠순 케이크



▲독서클럽 회원들과 해외여행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는 흡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방불케 했다. 영어유치원을 꼭 보내야 하는가에 관한 그녀들의 토론이 벌어졌고, 얼마 전부터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다는 한 친구의 말에 우리나라 공교육에 관한 토론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주제들로 피로해진 탓인지 나는 참고 참았던 하품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때 마침 한 친구와 눈이 마주쳤고 그 친구가 내게 물었다.

“영아, 너 학교 다닐 때 엄청 책벌레였잖아. 비결이 뭔데? 특별한 독서법 같은 거라도 있었나? 너희 엄마 노하우 얘기 좀 해봐라!”

책벌레라는 말에 오래된 책에서 가끔 작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장면을 잠깐 떠올린 후 친구에게 무심하게 한마디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책을 한 권도 안 사줬다.”

분위기 전환의 목적으로 던져진 친구의 질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웃기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단지 사실만을 딱 꼬집어 말했을 뿐이었다.

내 나이 10살, 그렇게 큰 책장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구미에 있는 고모 집 서가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크기와는 상관없이 뽕뽕 뽕뽕하고, 알록달록 예쁘게도 몸을 맞대고 들어앉아 있었다. 반들반들 광이 나는 책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스치며 훑었다. 교과서와 두꺼운 전화 번호부책이 전부인 한 칸짜리 우리 집 책꽂이와는 비교도 안되는 서가였다. 아마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시간을 나노초로 나누어서라도 그날 보았던 서가의 풍경과 감상을 세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매주 나는 엄마와 고모 집에 들렀고, 사촌 동생들과 노는 것보다 동화책을 읽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귀가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고모 집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책들을 모두 독파한 후 학교 앞 대성사(문구류와 서적들을 판매하는 상점의 상호)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의 대형서점처럼 여러 종류의 책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곳은 시간 도둑과 함께 아름다운 블랙홀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방과 후 대성사를 방문했고, 3단짜리 책장 1열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다. 판매하는 책을 당당히 한 권 꺼내 들고 완독할 때까지 몇 시간을 놀러 앉아 있었다. 말이 좋아 방문이지 매일같이 그곳의 인적 자원을 내 머릿속으로 갈취하는 수준이었다. 대성사 주인아저씨는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 책의 중간쯤을 펼치고 항상 책 냄새를 맡았다. 책마다 냄새, 촉감, 내용이 모두 다른 것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신성한 의식쯤 되는 버릇은 지금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읽을 때쯤이면 내 집게손가락은 본능적으로 책의 두께를 가늠했고 그 페이지가 대충 어디쯤인지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에게 책이란 명쾌하고 박학다식한 교육자이자, 강단이 있고 다정한 성격의 친구와도 같았다. 또한, 책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파란 바다를 내게 보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로 데려가 지구 탄생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당장에 펼쳐진 세계로 가닿을 수 있게 함에 감탄하기도 했었다. 그 이야기들은 차곡차곡 쌓여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거의 모든 것들을 탐험하고 꿈꾸게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중학교에 가서도 엄마는 내게 책을 한 권도 사주시지 않았다. 책은 늘 도서관에서 빌려 보았고, 소장하고 싶은 책이 생기면 용돈을 모아 구매하거나 용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엄마를 졸라본 적도 있었다. 중학교 때, 20권 정도 되는 한국 역사 전집을 사달라고 단식 투쟁을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투쟁할수록 엄마는 “네가 암만 때 써봐라. 내가 꿈쩍하나.”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지쳐 울기 직전인 내게 “너는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잖아. 다 읽은 책은 아무 쓸모도 없어.”라고 말하며 책의 수명을 제멋대로 판단해버리는 엄마를 미워하기도 하였다.

주말 오후, 두 아이와 함께 30분 남짓 거리의 친정에 들렀다. 거실 소파 위에 아빠가 일할 때 참고하는 추나요법에 관한 책 한 권이 뒹굴고 있었다. 책 본 김에 제사 지낸다 했었던가? 결론은 뭐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던, 친구들에게나 노하우였지 나에게는 그저 하우였던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이었다. ‘남들은 책을 사줘도 안 읽어서 문제라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에게 책을 한 권도 사주지 않았나?’에 대한 물음이었다. 살짝 정색하는 나에 반해 엄마는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질문이냐는 듯 여유 있게 대답하셨다.

“내가 설마 책 읽는 게 돈 아까워서 안 사준 줄 아나? 없어야 귀한 줄 알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거 알제? 여행도 본인이 가고 싶어서 애가 타야 계획도 세우고 돈도 모으지. 안 그렇나?”

책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여행 이야기냐며, 웬 삼천포로 빠지는가 싶어 재차 묻자, 엄마는 지난 이야기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이며 말씀하셨다. 고모 집 서가에서 동화책에 폭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독서에 어지간히 취미가 있는 것 같아 책을 사주지는 않고 매 주 고모 집에 데려갔다고 하셨다. 아마 엄마는 내가 책의 풍족함에 서 오는 피로에 짓눌리지 않고 즐겁게 책 덕후가 되길 바랐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일찍부터 대성사에서 일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아저씨에게 작게나마 성의 조로 값을 치르셨고, 언제든 내가 책을 읽고 갈 수 있게 양해를 구했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의 하우가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노하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음표가 느낌표가 된 순간이기도 했다.

설령 그것이 엄마가 계획한 청개구리 심리 요법이든 선의의 핑계이든 상관은 없었다. 여행을 보내 달라고 졸라보았지만 거절당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힘으로 여행경비를 모으고, 여행지 정보를 수집하고 여행을 떠났었다. 여행 중 예기치 못한 변수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 매력에 더욱 사로잡히기도 했었다. 나는 그 여행을 독서로 선택한 아이였다. 독서라는 여행의 초행길을 알려준 길잡이이자 조력자였던 엄마에게 오해해서 죄송스러웠고, 그 밖의 모든 것에 감사했다.

친정에서 점심을 먹은 뒤 소파에 누워 여유롭게 책을 펼쳐 들었다. 그때 엄마가 “그거 재미있나?”라고 물어오자 나는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어 독서를 권하였다. 엄마는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싫다! 내 그거 읽을 바엔 드라마 보는 게 최고다.” 하시며 눈을 흘기셨다. 책보다는 드라마가 최고라는 우리 엄마는 요즘도 내가 친정에 들르고 나올 때면 손자들 책 한 권씩 사주라며 용돈을 내 가방에 찔러 넣고는 후다닥 문을 걸어 잠그신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면 나는 가끔 지난날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곤 한다.

아들이 달아준 날개

조미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맹모삼천지교" 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들의 정성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이다. 맹자가 처음에 공동묘지 가까운 곳에 살았더니 장례 지내는 것을 따라하며 놀았다고 한다. 맹자 엄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흉내 내고 놀았다고 한다.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

나는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37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였는데, 소중한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맹자엄마처럼 열성을 가지고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첫 번째 시도는 “영어”였다. 무엇보다 영어를 잘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민간 영어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들보고 같이 영어를 공부하자고 하였다. 그때 아들은 유치원생이어서 ABC도 잘 모를 뿐더러 교재의 그림이 맘에 안 들어서 공부하기가 싫다고 했다. 아, 이런 낭패가! 게다가 내가 취득한 자격증 교재는 최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를 수월하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아들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겠다던 나의 꿈은 영어교사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잠시 접게 됐다.

두 번째 도전은 “코딩”이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딩을 교과서에 넣을 예정이니 어렸을 때부터 코딩 영재로 키워야 한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코딩 관련 자격증을 땀다. 그 후 우리 아들을 포함하여 동네 초, 중학생들을 모아 재능기부로 코딩을 가르쳐줬다. 아들은 예전에 직장에서 프로그래머였던 나를 닮아서 그런지 코딩하는 것을 잘 배우고 재미있게 게임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곧잘 만들었다. 그런데, 아들은 코딩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과 유튜브 보는 것을 훨씬 좋아했다. 매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데 1시간 이상 할애하는 아들이 또 컴퓨터를 가지고 코딩을 더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던 바였다. 그리고 코딩을 잘해서 대학을 잘 가는 전형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코딩을 잘 가르쳐서 코딩 천재를 만들면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나의 꿈이 또 산산히 깨졌다.

영어도 코딩도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 내가 무엇을 배워서 가르쳐야 할까 고심하던 차에 그해 수능시험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가져다가 풀어봤다. 다행히 문제는 모두 우리말이었다. 그런데 문제지가 한 과목당 10장이 넘어서 성인인 내가 읽고 풀기에도 버거웠다. 글을 빨리 읽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아들에게 “독서”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세 번째로 나는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독서토론논술을 공부하면 보고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만 신장되는 줄 알았더니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독서토론논술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책을 읽고 인격이 가다듬어져서 참다운 인격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또 책놀이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 학생들이 책과 친숙해지도록 도와주는 법을 배우고 독서토론리더과정에서 토론하는 법을 배웠다. 필사과정과 내책쓰기 과정을 통해 작문과 논술하는 법을 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 이 교육들은 동네 초등학교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모집하여 진행된 과정들을 수강하여 배우게 된 것들이었다.

또한 작년 4월에 나는 여러가지 독서토론논술 관련 공부를 하는 와중에 하루 한권 책을 읽는 워킹맘인 전안나 작가의 "1천권독서법"이라는 책을 읽게 되어 나도 저자처럼 책을 많이 읽기로 결심하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14개월 동안 130여권의 책을 읽었

다. 한 달에 거의 9권씩 읽은 셈이니 3~4일에 한 권씩 책을 읽었다. 좀 더 속력을 내어, 나도 1천권 독서를 언젠가 꼭 달성할 것이다. 또 아들과 매일 자기 전에 책을 같이 읽고 자는데 어린이 책에도 내가 모르던 지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탄할 때가 많다.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시작한 독서토론논술 공부나 나에게도 지식과 지혜와 인격의 성숙까지 가져다주는 것 같아 기쁘다.

작년 3월부터 아들을 비롯한 동네 초등생들에게도 독서토론논술을 가르쳤는데,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기쁘게도 아들은 논술, 작문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모든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과목, 전 영역에서 “매우 잘함”을 받아오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아들이 혼자 책을 볼 때 독서토론논술 학습 전보다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아들과 내가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자 남편도 서점에 가서 많은 책을 사다가 읽는 등 온 가족이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생활화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모범적인 독서 실천 가족이 되었다.

나에게 배우는 학생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독후감을 길게 쓰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일기를 전보다 잘 쓰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요”라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었다. 책을 읽고 소감을 써보라니까 겨우 단어하나, 문장 하나 쓰던 아이가 점점 더 길게 자신의 감상을 쓰게 되고 책을 한 줄 읽는 것도 더듬거리던 아이가 줄줄줄 책을 읽는 아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말, 없어지면 안 되는 말”을 써보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없어지면 안 되는 말에 “논술 선생님”이라고 나를 지칭하는 말을 썼다. “처음엔 수업 배우는 게 재미없었는데 이제 재밌어졌어요!”라고 말하기도 하며, 새 교재를 사줬는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전체 책을 다 읽어오고 하는 변화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서관련 자격증들도 따고 내가 먼저 변하니까 학생들이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독서토론논술에 대한 많은 지식과 스킬을 쌓게 되고 초등생들을 가르치는 경험도 해보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엄마의 평범한 소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아직은 내가 독서토론논술 전문가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계속 이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내 아들도 많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고 먼 미래에 나는 많은 아이들을 제자로 둔 노련한 독서토론논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책들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들은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꿈들을 꾸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과 즐거움과 지혜와 지식의 지경을 열어준 우리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에게 “독서, 그리고 독서토론논술”과의 만남은 아들이 나에게 달아준 “날개”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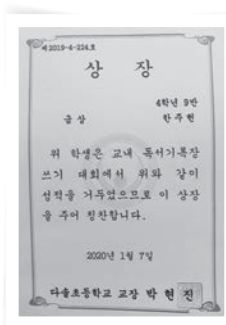
“주현아! 고맙고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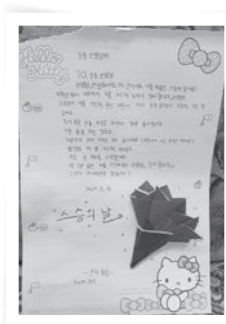
▲가족사진



▲솔향기 작은 도서관을 다니며 독서토론 리더, 내책쓰기 등 과정을 들을 때



▲아들이 독서기록장 쓰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



▲학생이 써서 보내준 스승의 날 감사편지



▲즐겁게 독서토론논술 수업을 하는 사진들

모모가 선물한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

홍종림 대구 달성군 다사읍

2020년 3월, 새순이 움트고 신학기가 시작되어 긴 방학 동안 아이들과 집에서 씨름했을 엄마들은 짧게나마 자유 시간을 만끽할 생각에 들떠 있을 시기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훅 들어왔다. 저 멀리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웹상의 뉴스에서만 접하던 바로 그것.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연일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예정에 없던 방학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먹거리를 사러 마트도 나가기 불안하던 그 상황에서 아이들과 집에서만 머물게 되니 자꾸 부딪치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간단한 요리 함께 만들기, 집안 인테리어 바꾸기, 보드 게임 즐기기, 화분 가꾸기 등등.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를 시

도했던 일이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5년 정도 되었을까? 동네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시작한 독서 모임을 매주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동네 언니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크면 꼭 함께 읽어봐야지.’ 하고 챙겨 두었던 독서 목록이 있다. 한 권, 한 권 채워가면서 청소년 소설에 대한 재미까지 붙이고 있었는데, ‘엮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했던가? 그 독서 모임마저 참석할 수 없는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함께 읽기’를 실행에 옮겨 보기로 했다. 목록을 죽 훑어보다가 ‘이거다!’하고 눈에 들어오는 노란 표지의 책. 바로 미하엘 엔테의 <모모>다. 책 두께에 먼저 놀라는 아이들과 의자 세 개 나란히 붙여 옹기종기 앉았다. 그 사이에 책을 세워두고, 책 표지의 소개 문장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나이라도 분명하지 않은 자기 또래의 소녀가 혼자서 지붕도 없이 허물어져가는 원형극장에서 산다니 호기심이 마구마구 동한 모양이다.

“나 정도네? 그런데 애네 엄마는 어디 있어?”

아이들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설정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질문이 하나 둘 터져 나오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귀여워서 대답 대신 질문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주

었다. 마을 사람들의 하소연에 모모가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닌데, 모모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스스로 그 답을 구해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함께 따라가면서 아이들은 궁금해 하기보다 공감하는 듯이 보였다.

“근데 말이야, 모모는 듣기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모모에게 자꾸 오는 걸까?”

“친구한테 털어놓기만 해도 후련할 때가 있잖아. 그런 거 아냐?”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아이들은 한 챕터의 짧은 이야기를 읽고는 자기 이야기 할 것들이 많은 모양이었다. 같이 책 읽기를 안하겠다고더니, 재잘재잘 이야기를 쏟아내는 아이들을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싶었다. 세 번째 날이 되니 아이들은 스스로 의자를 나란히 놓고, 책을 준비해 식탁에 모여 앉는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 카나리아에게 일주일 내내 귀를 기울여 드디어

카나리아가 즐겁게 지저귀도록 한 모모. 둘째 아이는 어느새 모모를 읽으면서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드는 곳에 가서 모모가 되었다. 동물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몰라 길고양이들 곁을 서성이기를 몇 날 몇 일. 그러더니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다가가 녀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고양이가 항상 오는 시간도 알게 되어 어김없이 오후 4시면 고양이들의 아지트에서 녀석들과 뭔가를 이야기한다. 주변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들으니 고양이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

고, 가만히 앉아 야옹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들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깔깔대며 놀아야 할 아이가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렇게 또 인생을 배워가는 거겠지 싶어 그대로 두었다. 고양이에게 하듯이 훗날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지낼 수 있겠지? 고양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녀석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나열하면서 관찰했던 것들을 내게도 들려주었다. 아이도 모모의 멋진 면모를 배우는데 나도 뭔가 해야지 싶어 아이들과의 책 읽기를 블로그에 옮기기 시작했다.

네 번째 날 아이들과 이야기를 읽어가다 땀 터졌다. ‘오겔몹프 비스트로치날리스’, ‘스트롭푸스 쿠비에치넨주스’, ‘숨숨 구미라스티쿰’. 모모가 아이들과 놀이 중에 만들어낸 말이다. 정작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는데, 아이들은 생소한 말에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실실 웃더니 박장대소를 한다. 뭘 알아듣고 웃는 건가? 급기야 팔 꼭질까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 말을 되풀이하며 웃는데, 이거 윈. 아이들의 웃음 코드를 따라가지 못해 난감했다. 난 이제 감성이 턱없이 모자라게 됐다는 증거인 것만 같아 내심 씁쓸했다.

모모에게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둘 있는데, 바로 청소부 베포와 관광 안내원 기기였다.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베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이

야기라는 것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난 외발자전거를 탈 때 그랬어. 왼발로 페달에 발을 얹어 바퀴를 반 바퀴 돌리고 나면 다시 오른발을 얹어 반 바퀴를 돌리고 기분이 좋아져. 그걸 반 바퀴씩 반 바퀴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전거를 잘 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정말 기분이 좋아!”

“아침에 방 청소할 때도 그래. 빗자루를 들고 이 방, 저 방, 넓은 곳을 쓸러고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쓸어 담다 보면 어느새 방을 다 청소하게 되는 게 참 재미있어.”

별달리 설명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곁에서 번갈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함께 읽기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 말에 놀라왔다.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다면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치기. 그리고는 그날 만난 새로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책의 빈 공간에 옮겨 적었다. 각자 사전 한 권씩 꿰차고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기특했다.

시간을 훑치는 도둑, 회색신사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단어가 마구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의 손도 부지런해졌다. 1부 4장 말미에 나타나기 시작한 회색 신사들. 큰 아이는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모양이다. 밤 12시가 되도록 그 뒷이야기를 혼자서 읽어 내린다. 그래도 마지막 장을 함께 덮을 때까지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받아 뒀다. 궁금하긴 마찬가지지만, 억울하게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잠들어버린 둘째가 너무 속상해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모모와 함께하면서 셋이 나란히 붙어 앉아 따뜻한 봄날을 보낼 수 있었다. 때로는 회색신사들이 쫓아와 조급해하기도 하고, 느릿느릿한 거북의 걸음에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모모의 길을 함께 읽어 내렸다. 한 달여 시간동안 아이들은 함께 읽은 내용이 잠결에 꿈에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장을 뒤적이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도해 보길 잘했구나 싶었다. 늘 독서 모임을 이어가면서 나만 이 좋은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미루던 일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어 더없이 좋았다. 첫 번째 함께 만난 친구가 모모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더 잘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 어쨌건 모모 덕분에 한 달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어른들과의 책 읽기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전개되어 그 나름의 후련한 맛이 있었다면, 이번에 아이들과의 책 읽기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로써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일과를 챙기느라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지, 웃음 코드가 어디에서 전개되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할까? 조금 컸다고 스스로 책 읽으라고 했었는데, 아이들과 독서모임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지만 코로나는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함께 읽을 책을 물색했다. 이번에

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광고에서 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더라구. 〈수상한 진흙〉 읽어보면 안돼?”

“당연히 되지! 안될 이유가 없지.”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루이스 새커의 〈수상한 진흙〉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책표지를 웹으로 보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책읽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제목을 들으면서 벌써 시작한 모양이다. 나도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로 두 번째 여행을 함께 할 준비를 해야겠다.

|심사평|

모두가 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아름답고 잔잔한 투쟁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제11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도서관도 몇 달간 휴관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지만 책을 사랑하는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360여 편의 응모작 중 60편이 본심에 올랐다.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신중을 기했지만, 모두가 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아름답고 잔잔한 투쟁기였다. 이러한 책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일상 속에 깊게 뿌리내리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고 건강할 거라고 확신한다.

많은 작품들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 책읽기를 통한 활동 보고서나 독후감상문을 쓰듯 문체가 건조하여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단 나누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주제를 향한 일관성이 부족한 작품도 의외로 많았다.

대상으로 뽑은 도애희 씨의 〈아버지의 책 상자〉는 담담하게 글을 끌고 나가는 힘이 돋보인 작품이다. 문장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그의 진솔한 목소리는 쉽고 깔끔하게 전달되었다. ‘기마이가 좋은’ 아버지의 추억담은 자칫 자조적이거나 회한적으로 흐르기가 쉽다.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와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성에 매몰 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학적이면서도 문체의 노련미가 돋보인 수작이다.

금상으로 뽑은 이현숙 씨의 〈책으로 이어진 인연〉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책으로 엮인 운명 같은 만남은 도입부에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결혼 후에도 책은 소소한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변함이 없으며,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랑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책과 삶을 사랑하는 긍정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 좋았다.

또 다른 금상 이주희 씨의 〈나의 문학소녀를 위하여〉도 책이 주는 소통의 힘이 제대로 전달된 작품이다. 제목이 참신하다. 책을 통해서 조심스럽고 불편하기만 한 시어머니를 알아가는 며느리의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났다. 「55년생 김지영」으로 시어머니를 읽으며 다가가는 노력은 올림이 크다. 책이 주는 건강한 영향력이 읽는

이를 훈훈하게 한다.

당선된 이들에게 축하드리며, 책과 글쓰기를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심사위원장 : 박방희 (대구문인협회 회장)
- 심 사 위 원 : 조남희 (수필가)
박진관 (영남일보 문화부장)

